

12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박수지

이달의 표지 작가



표지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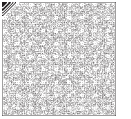
〈Bloom Series〉

도자 | 가변 크기 | 2015



박수지는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도자공예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2018년 캔 파운데이션(CAN foundation)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했고, 현재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카데미 11기 입주작가이다. 〈밤에는 작은소리도 크게 들린다〉(스페이스 소,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청주, 2019), 〈컬러스〉(이안아트스페이스, 2019) 등 다수의 공모전과 그룹전에 참가했으며 첫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나의 작업은 자연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한다. 나는 자연의 변화를 통해 시간이라는 요소를 흙으로 표현하려 한다. 시간은 순환하며 반복적이다. 나에게 흙을 만진다는 것은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자 말 없는 표현의 한 방법이다. 작업을 할 때, 시간의 인식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의 호흡과 리듬을 통해 재구성해 나아가려고 한다. 또한 자연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을 나만의 시각적 어휘를 사용해 표현하려고 한다. 추상적인 것을 통해 어떠한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것은 막연할 수도 있으나, 나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이미지 기억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형물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나만의 표현 방식을 찾아가고 있다. 이처럼 자연이라는 공간은 나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갖게 한다. 지속적인 리서치 작업으로 축적된 많은 양의 자료는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되고 재배열된다. 오랜 시간 반복적인 행위로 이뤄진 나의 작업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을 통해 '예술적인 노동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며 작업을 풀어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 탐험가'라는 주제 아래 예술적인 노동의 가치를 보여주고자 한다.



〈Untitled_10_4177〉
도자 | 125×95cm | 2019



〈Flow Series〉
도자 | 69.5×69.5cm | 2012



〈소리의 파편 Installation〉
혼합매체 | 70×180cm | 2017

CONTENTS

2020 05 VOL. 159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김종휘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전주호, 오니트(주)
각원 편집위원 김태희
사진·디자인 (재)서울문화재단, 오니트(주)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66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agazine
발행일 2020년 4월 29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01 커버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박수지

테마 토크
사회적 위기가 불러온 문화예술 패러다임의 변화

06 칼럼 1
갑자기 멈춤 이후의 예술 생태계...

08 리포트 1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 긴급지원

12 리포트 2
온라인으로 즐기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18 칼럼 2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의 슬기로운 방식

사람과 사람

20 문화인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이상국 시인

24 아트서울기부투게더
오비맥주 버드와이저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



26 서울 할나

28 진실 혹은 대담

코로나19와 지역 문화생태계

이슈 & 토픽

34 화제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베를린에서 만난
문화예술과 도시재생의 단어들

공간, 공감

38 공간

복합문화공간 '더 레퍼런스'

40 공감 1

모노극 <그라운드>와 2인극 <령스>

42 공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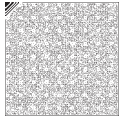
전시 <미술관에 書: 한국 근현대 서예전>과
<박영숙: 그림자의 눈물>

44 공감 3

책 <고독 깊은 곳>과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



SOUL OF SEOUL



46 이경자의 서울 반세기, 공간을 더듬다

시장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

48 김송희의 썰(說)

새로운 엔터테인먼트가 된 쿠키와 먹거리

50 류태형의 음악정원

'2020 세계 피아노의 날' 기념 온라인 스트리밍 콘서트

52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바닷마을 다이어리>

WEBZINE+

56 웹진 [비유]

내면으로 침잠하는 종족

58 웹진 [연극in]

극회출신 관객의 학공관극기

60 웹진 [춤:in]

최강프로젝트(강진안+최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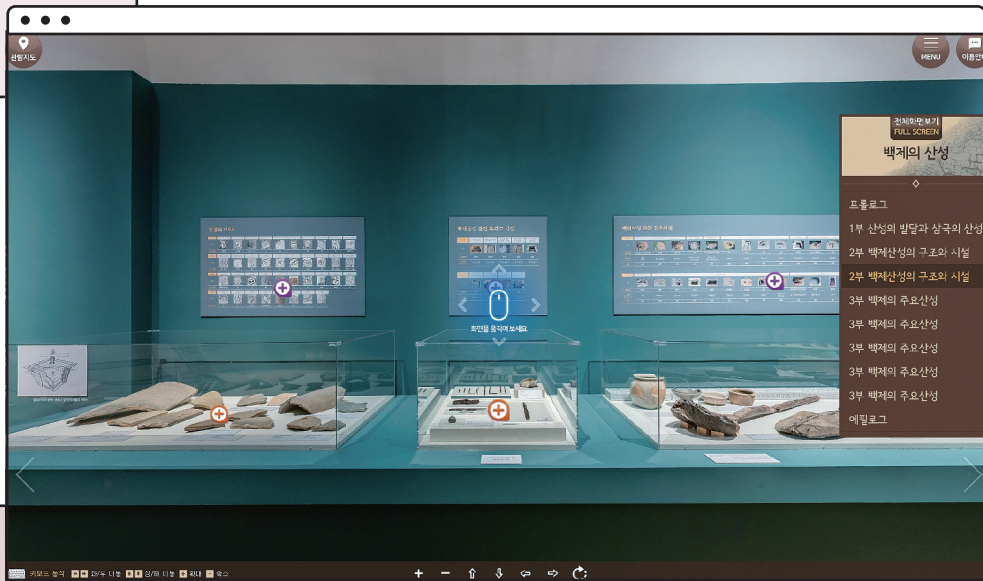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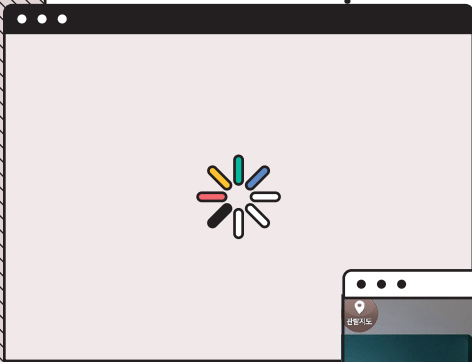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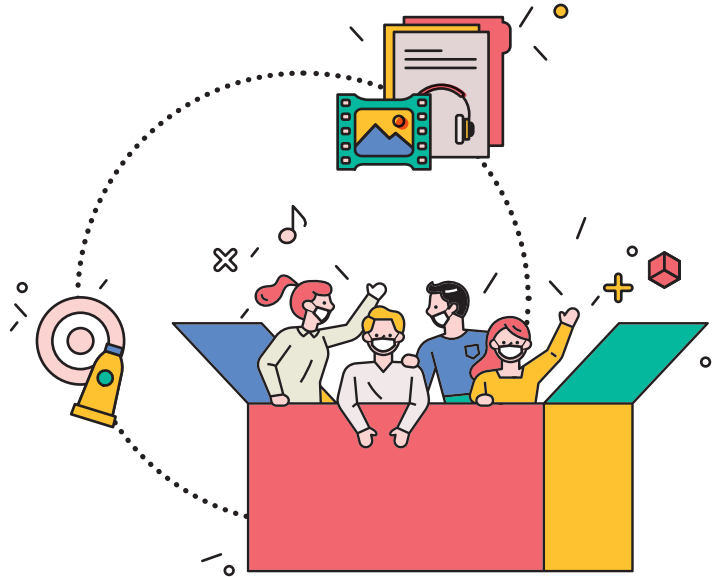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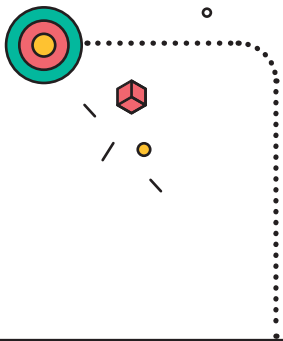
62 5월의 서울문화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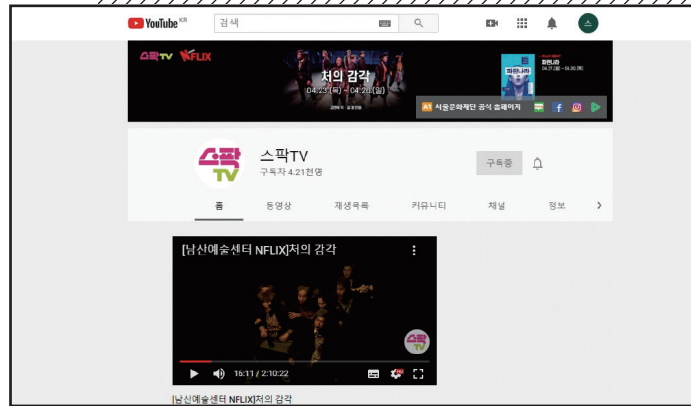
68 편집 후기



예술인·시민 모두가 마주한 변화의 시간

사회적 위기가 불러온 문화예술 패러다임의 변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고 있다. 지난 2월 중순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공연장과 전시장, 박물관 등이 휴관에 돌입했고, 예정된 행사와 페스티벌 등 각종 이벤트는 취소 또는 연기됐다. 문화예술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완성된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잃은 수많은 창작자들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직면했다.

이에 서울특별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계에 긴급지원 한다는 내용을 지난 4월 발표했다. 이 중 서울문화재단은 5개 부문에 걸쳐 예술인(단체)·예술교육가·기획자 등에게 총 60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오프라인 공간 활동이 어려워진 때에 주목받은 분야는 기존의 전통적인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변화한 콘텐츠다. 서울문화재단은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긴급지원 한다"는 목표 아래 단기적으로는 문화예술에 직접 지원을 진행하며, 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 예술 생태계의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전염병의 여파는 우리 일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예술의전당, 국립현대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등 국공립기관을 중심으로 공연의 온라인 생중계와 스트리밍,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가 '집콕' 중인 대중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표현이 다시금 진지하게 다가오는 시대, 문화예술계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어쩌면 새롭게 다가올 문화예술 생태계의 변화에 서서히 적응할 시간을 가져야 할지 모른다.



이상한 봄입니다

갑자기 멈춤 이후의 예술 생태계...



갑자기 멈추었. 습니다.

결코 '갑자기'는 아니었을 이 멈춤과 함께 우리는 감각의 지진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처럼 늘 반복돼 온 관성과 탄환의 수척으로 지내는 오늘이 길어지면서입니다. 익숙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내일을 받아들이자니 꽤 많이 힘듭니다. 당연시했던 일상의 자질구레한 것들이 돌아보니 어마하게 산더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멈추고, 느려지고, 멀어지고 나서입니다.

나의 가정과 일, 준거 집단, 도시와 나라의 작동 방식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어떤 결정을 다 같이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모두가 몸으로 느끼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서로에게서 보게 된 경험 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2미터 간격을 유지한 채 수시로 손을 씻으며 모니터와 마주 앉아 모두가 모두를 대하고 있는 이 낯선 장면과 더불어 우리가 선택해야만 할 지속 가능한 생활과 공동체의 여러 방식 안에는 탈진 상태의 예술 생태계에 속한 예술인'들과 문화종사자'들이 있습니다. '들'이라 쓴 것은 이들 각자가 '개별적인 나, 지금, 여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특징이 있겠으나 세목에서 서로 다른 복합적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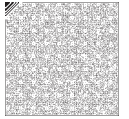
문광훈 선생의 책《심미주의 선언》에 나오듯 사회의 변화에 우선될 것은 '정책적 입안과 행정적 조치' '제도적 장치와 이를 위한 법률적 구속력'이겠으나 "각자가 공동의 사안에 얼마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가 무엇보다 결정적이며, 이 점에서 다시금 '예술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갑자기 멈추고 나서 이 '갑자기'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음을 알아차리며 멈추어야 할 것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을 새로 분별하는 감각·생각·표현은 예술인과 문화종사자 개별자'들의 자발적 선택'들'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 자발과 선택'들을 뒷받침하는 일이 코로나19 이후 서울문화재단이 우선적으로 집중할 당면 과제이자 중장기 방향을 재설정하는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예술 현장, 지역 현장, 청년 현장의 주체'들과 함께 협의하고 숙의해서 같이 결정해 나가는 과정의 경험을 쌓아가는 일이 몹시 중요해질 것입니다.

전염병 방역과 경제위기 방역이 국민의 자발적인 생활 방역으로 가능한지는 정부가 국민과 협의하고 같이 결정하는 과정을 체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예술 '방역'이라는 표현을 쓰며 예술의 전환 또는 예술에 의한 전환이 가능하다면, 역시 사회적으로 협의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시작되면 행정과 공공기관이 먼저 방식을 전환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방식의 전환에서 핵심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둘러싼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돈을 주고받는 방식과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100만 원을 받는다면 시장의 상품처럼 그 값을 증명하는 방식을 고수할지
각자 자신의 가치대로 100만 원을 사용하는 과정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할지입니다.

배우 정동환 선생의 말을 빌리면, 우리 사회와 정부가 '예술의 값어치'를 시장처럼 매길지,
공공의 철학으로 '예술의 가치'를 존중할 것인지 선택하는 일입니다.
예술의 최종 결과물에 앞서 예술의 전 과정을, 그 주체인 예술인의 존재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다 같이 결정하는 일이 됩니다.

언제든 다시 "학교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말을 하며 아이들이 귀가하는 날.
그날과 함께 예술인과 문화종사자'들이 예술의 가치와 예술인의 존재로서
공공의 돈을 주고받고 사용하는 새로운 방식도 개시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날이라면 모든 육아와 돌봄의 노동부터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인,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개별자의 상상'들이, 사회적 상상으로 엮이고
정책적 상상의 틀을 만들며 제도의 전환을 견인할 유일한 힘
바로 "예술의 가능성"일 것이며, "정지의 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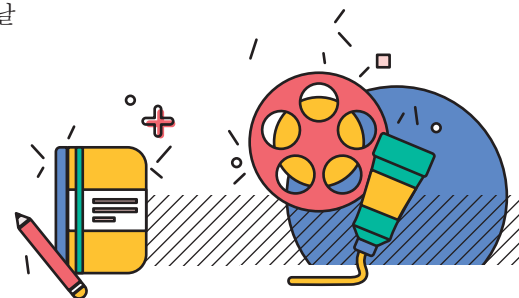
"정지의 힘"은 백무산 시인의 시 제목입니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는
"씨앗처럼 정지하라, 그 힘으로 꽃은 피어난다"는 그 힘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정지의 감각"이라던 시인의 다른 시처럼
지금은 "정지의 감각"부터 정직하게 되찾는 시간이고 이윽고
"정지의 힘"으로 삶의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예술의 가능성"을
힘겹게, 탈나며, 따로 또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합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화창한 봄입니다.
외투는 갈아입었으나 마음은 스산한, 이상한 봄입니다.
멈추었습니다만, 멈춤 안에서만 가능한 힘으로 피어날
그날의 예술이 지금 이미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이상하지만, 점점 더 이상하지 않게 말입니다.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글 김종휘_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포괄적이고 촘촘하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 긴급지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권장되면서 봄을 더욱 풍성하게 하던 문화예술·예술인의 삶에는 위기의 그림자가 짙어졌다. 사회가 잠깐 멈췄지만 우리는 곧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움직여야 한다. 지난 4월 서울시의 문화예술계 추가 예산 긴급지원 방안이 발표됐고, 서울문화재단은 총 60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문화예술계 긴급지원 공모를 진행했다. '사각지대 없이 포괄적이고 촘촘하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라는 지원 목표와 사업 세부 내용에는 문화예술 생태계의 변곡점에서 마주한 고민이 담겨 있다.



문화예술이 시대성을 띠듯 관련 정책도 시대를 반영한다. 언젠가부터 '청년' '거버넌스' '배리어프리'가 화두로 자리 잡더니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화두로 떠올랐다. 전통적으로 공연·전시와 같은 문화예술 콘텐츠에서 '현장성'은 매우 중요시되는 조건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문화예술 콘텐츠와 온라인 플랫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현장성이 필수 불가결의 조건으로 인식돼 온 점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온라인 플랫폼이 현장성을 대체할 수 있을지, 혹은 새로운 장르의 문화예술 콘텐츠 탄생으로 봐야 할지 속단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아이러니하게도 온라인 플랫폼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언론사는 '오늘의 온라인 공연'이라는 코너를 신설하고, 문화예술 기관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연·전시 콘텐츠를 공개한다. 재단의 이번 긴급지원 사업에서도 '온라인'이라는 키워드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 생태계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사각지대 없이 포괄적이고 촘촘하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총 5개 부문으로 ▲예술인(단체)과 기획자 등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예술교육가(단체) 및 프로젝트 그룹 등을 지원하는 <예술교육 연구활동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긴급지원>('예술교육 연구활동 계획안 공모'와 '#모두의 예술놀이') ▲프리랜서 예술가 및 문화예술 독립 기획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문화예술 기획자) 문화기획 활동 긴급지원 사업 [190시간]> ▲코로나19 등 재난에 대처하는 예술인(단체)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지원하는 <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 ▲남산예술센터의 시즌 프로그램 작품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불편 없이 관람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공연 영상 제작·배포>가 그것이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은 문화예술계 종사자(단체)들의 활동과 작품 제작 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상되는 문화예술 생태계의 변화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됐다.

이번 긴급지원 사업은 5개 부문 간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선



정되는 경우 한 분야의 지원을 택일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2020 서울예술지원> 1·2차 공모 등 2020년 서울문화재단 공모 사업에 선정된 주체는 동일 사업으로 이번 긴급지원 사업에 중복 신청(신청)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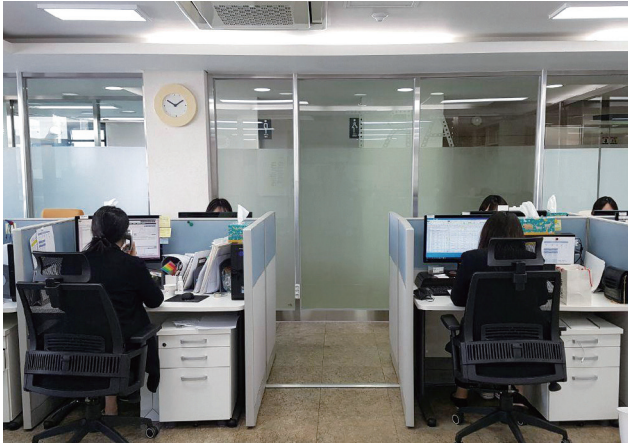
당초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긴급지원 사업 5개 부문'에 집행될 추가 예산은 45억 원이었으나 여기에 15억 4천만 원이 더해져 최종 60억 4천만 원으로 결정됐다. 지원 건수 역시 기존 500건에서 330건이 늘어 830건이 됐다. 추가 재원이 조성되고 지원 건수가 늘어난 것은 4월 10일부터 20일까지(<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는 4월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공모의 접수 결과 때문이다. 열흘간 진행된 공모에 4,999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수치는 재

단이 공모한 '2020년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에 접수된 3,936건을 웃도는 수치다. 재단은 이를 두고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직면한 위기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 해석했고, 당초 계획한 사업을 재조정해 추가 재원을 마련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더 많은 예술인에게 지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각 부문 지원사업의 지원금 배부는 5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마련된 추가 재원(15억 4천만 원)에 남산예술센터의 <배리어프리 공연 영상 제작·배포>는 포함되지 않는다.)

긴급지원 사업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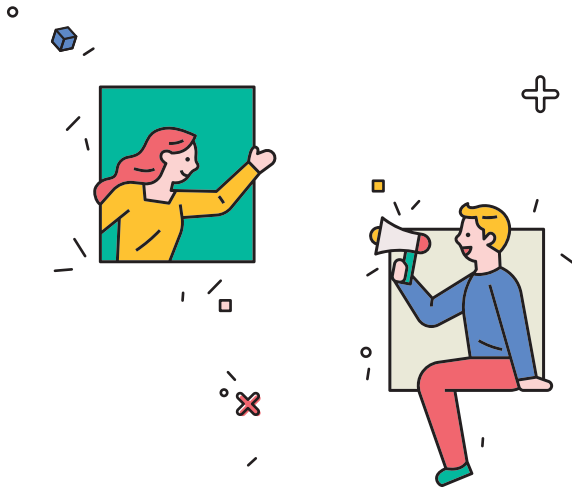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의 지원 분야는 두 부문으로 나뉜다. 장르(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다원, 문학행사, 아동·청소년극)와 예술 일반(공간 기반 기획 프로젝트-소극장·미술관·박물관·갤러리 등)이 그것이다. 선정된 예술인(단체)은 코로나19로 집단 관람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작업 특성에 따라 온라인 콘

→ 재단은 지난 4월 21일(화) 온라인 긴급 토론회 '코로나19, 문화예술 긴급지원정책을 평가하고 제안하다'를 개최했다. 시·도·자치구별 문화예술 기관의 지원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이날 토론회는 현장 참석객 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텐츠(영상)를 제작하거나 오프라인에서 공연과 전시를 발표하는 등 작품 발표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예술교육 연구 활동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긴급지원>은 현장 교육이 어려운 시기에 예술교육가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예술교육 연구활동 계획안'을 공모하고 지원하는 '예술교육 연구활동 계획안 공모'와 온라인 예술교육(놀이)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모두의 예술놀이'로 사업을 구분해 공모를 진행했다. <예술인(문화예술 기획자) 문화기획 활동 긴급지원 사업 [190시간]>은 지원 분야가 3개 부문(담론·기획·실행)으로 나뉜다. '담론'은 서울의 문화기획 활동과 도시문화 관련 현황 점검 및 전망을 제시하는 연구·포럼·세미나, '기획'은 새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리서치 및 기획안 구상·작성이다. 마지막으로 '실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실행하는 소소한 활동이다. 부문별로 190시간이 주어진다. <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의 지원 분야는 공연·전시·영상·출판 등 전 장르로,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예술인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한 후 실행·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결과물은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 향후 '예술인 재난 대응 아이디어'로 온·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게 배포하고, 예술인들 간 공유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남산예술센터의 <배리어프리 공연 영상 제작·배포>는 '모두에게 장벽 없는 극장'이라는 목표 아래 코로나19 이후 중·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남산예술센터 2020 시즌 프로그램 작품인 <휴먼푸가> <아카시아와, 아카시아를 삼키는 것> <남산예술센터 대부흥성회> <왕서개 이야기> 등 네 편의 작품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해설과 수어(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이 담긴 배리어프리 영상으로 제작된다. 현장 공연을 마친 후 1~2개월의 제작 기간을 거쳐 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sfacmovie)과 남산예술센터 누리집(www.nsan.or.kr)을 통해 무료로 공개된다.

- 지난 4월 공모를 진행한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사업> 전화 문의처
- 예술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간담회 'The 넓은 라운드 테이블'
- 남산예술센터 엔플릭스(NFLIX) 상영회 웹 홍보물



5개 부문 외 긴급지원 대책

재단은 기존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단체)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지난 2월 21일에 연극·무용·음악·문학·전통·다원·시각 등 총 7개 분야에서 600여 명의 선정자(예술인·단체)를 발표한 ‘예술인창작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첫째, 올해 지원사업의 사업 종료 일자를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6월 30일로 연장했다. 둘째, 얼어붙은 예술계의 현장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의 지급일을 최대한 앞당긴다. 셋째,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연·전시를 진행·준비하는 예술인(단체)의 안

전한 창작 환경 마련을 돕는다. 넷째,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도 취소되거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 포기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

남산예술센터는 임시휴관 기간인 4월 한 달 동안 2016~2019 시즌 역대 화제작을 모아 상영하는 ‘남산예술센터 엔플릭스(NFLIX) 상영회’를 개최했다. <그림,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원작 장강명·각색 정진새·연출 강량원)을 시작으로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작·연출 박근형), <7번국도>(작 배해률·연출 구자해), <그녀를 말해요>(구성·연출 이경성), <처의 감각>(작 고연옥·연출 김정), <파란나라>(작·연출 김수정)까지 총 6편의 작품이 상영됐다. 각 작품은 해당 작품 상영일 오전 10시부터 종료일 오후 10시까지 서울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TV를 통해 무료로 공개됐다.

또한 남산예술센터와 삼일로창고극장은 관객 수 감소에 따라 제작비 회수가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공연 티켓 판매 수익 전액을 공동제작 단체에 지급하고, 공연장과 스튜디오 대관료를 70%까지 인하하는 등 제작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는 향후 수시대관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리 전주호·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사진 서울문화재단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긴급지원 사업’ 5개 부문 관련 문의

사업	담당 부서	연락처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창작기반본부 문래예술공장	02-2676-4300
<예술교육 연구활동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긴급지원>	예술교육본부 예술교육팀 ‘예술교육 연구활동 계획안 공모’ 예술교육본부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모두의 예술놀이’	02-3290-7417 02-2697-0016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문화시민본부 지역문화팀	02-758-2076
<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	예술지원본부 예술청팀	02-3290-7196
<배리어프리 공연 영상 제작·배포>	극장운영실 기획제작팀	02-758-2150

※ 지원 사업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 참조(www.sfac.or.kr)

사회적 거리 두기, 문화예술과 온라인의 거리를 좁히다

온라인으로 즐기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코로나19로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미술관과 박물관, 공연장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최신 기술을 활용해 직접 박물관에 간 것 같은 시청각적 효과를 준다거나, 그동안 쉽게 만나기 어렵던 인기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큐레이터에게 전시 해설을 들으며 미술관을 둘러볼 수도 있고, 생중계로 공연을 관람하기도 한다. '방구석 1열'에서 '집콕' 하며 '랜선'으로 즐기는 문화생활.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시공간 및 경제적 제약이 없는 문화생활로 우리 마음 한편은 충분히 풍요롭게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VR 기술로 극대화한 전시 경험

직접 가지 않아도 생생하게 관람하는 박물관·미술관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이나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가 코로나19 이후 박물관·미술관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확장된 전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주요 전시를 가상현실과 영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편했다. 박물관 누리집(www.museum.go.kr)에 접속하면 초기 화면에서 바로 VR과 동영상 섹션으로 분류된 다양한 전시가 있다. 3월에 종료된 <가야본성 칼(劍)과 현(絃)> 특별전 또한 전시실의 모습 그대로 VR로 관람할 수 있다. 360도의 화각을 가진 카메라를 이용, 전시물을 직접 보듯 실감나게 꾸렸다. 직접 전시장에 들어서는 화면을 시작으로, 전시장을 이리저리 둘러볼 수 있고 전시물을 클릭하면 자세한 설명까지 읽을 수 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사비나미술관은 휴관 없이 기획전 <뜻밖의 발견, 세렌디피티> 등을 열고 있지만, <예술가의 명상법> 등 지난 전시 29편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은 2012년부터 레오나르도 티시코브의 <Private Moon>, 테리보더의 <먹고, 즐기고, 사랑하라!> 등 총 29편의 전시를 VR로 제작해 누리집에서 운영하고 있다. 실제 전시장에 있는 것같이 화면을 움직여 360도로 돌아볼 수 있고, 화면 확대와 축소도 가능하다. 사비나미술관의 누리집(www.savinamuseum.com)에 접속하면 VR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 감상 프로그램인 '버추얼 전시감상 투어'도 만나볼 수 있는데, 온라인 가상 전시에 더해 큐레이터의 음성으로 전문적인 해설까지 들을 수 있다. 전시장에 구현된 영상 작품과 작가 인터뷰, 디지털 전시 도록 등도 준비됐다. 전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참여 작가, 공간에 대한 작가의 해석 및 전시 분위기를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시 및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전시도 공연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이후 해체돼 다시는 그 순간을 감상할 수 없다. 사비나미술관의 강재현 학예실장은, 전시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이미지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책자 형태의 자료집보다 생생한 기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카이빙 기능'을 실감형 콘텐츠의 장점으로 보았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적으로 멀리 있거나 학교나 병원 등 특정 시설에서 미술관을 찾아오기 어려운 관람자를 위한 '전시 감상 및 교육 기능'이 두드러졌다고도 밝혔다. 그리고 해외에 미술관의 전시 및 국내 작가를 소개하기에 유용하다는 점 또한 실감형 콘텐츠의 장점으로 꼽았다. 꾸준히 '미래형 디지털 미술관'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추후에도 전시 감상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연동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송파구에 위치한 한성백제박물관의 경우, 최근 게임을



→ 사비나미술관의 VR 전시 프로그램

하며 덕흥리 벽화고분 내부를 볼 수 있는 '덕흥리 벽화고분 VR'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김영심 전시기획팀 과장은 이 콘텐츠가 영상 세대에게 흥미를 끌 수 있을 거라 예측하면서, 박물관이 좀 더 친숙한 공간, 살아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콘텐츠, 오프라인 관람으로 연결하는 매개체 되길

강재현 사비나미술관 학예실장

Q VR 콘텐츠가 갖는 장점과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A 전시장에서 작품을 마주하면서 오는 감동이나 작품의 아우라를 온라인 환경에서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미술의 경우 전시장에서보다 좀 더 친절하고 교육적인 서비스(텍스트나 음성)의 작품 해설, 작가의 출판작 이외 관련 작가 인터뷰, 작가 노트 등의 자료 연동)가 가능합니다. 단지 시각적인 부분에서의 VR 콘텐츠라기보다는 다양한 정보를 연동해 작가나 작품을 더욱 깊게 연구하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온라인 콘텐츠가 박물관 이용과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지?

A 온라인 콘텐츠는 결국 예비 관람객에게 미술(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온라인상에서 벗어나 미술관에 방문해 실제 작품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만나는 작품이 그들의 흥미를 유도해 미술관으로 이끈다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실감형 콘텐츠 자체가 하나의 유의미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A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감형 콘텐츠의 필요성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봅니다. 2012년 당시에는 아카이브 기능에 중점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전시 감상과 더불어 교육 콘텐츠로서 활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기관에서 제작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VR 콘텐츠의 활용 필요성 느껴

김영심 한성백제박물관 전시기획 과장

Q VR 콘텐츠가 갖는 장점과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A 직접 전시를 보러 올 시간 여유가 없거나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는 분들이 전시 해설 동영상이나 박물관 가상 체험을 통해 전시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유물을 직접 눈으로 봄으로써 느끼는 감동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보조 자료라는 점을 인식하고, VR 콘텐츠를 만들 때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온라인 콘텐츠가 박물관 이용과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지?

A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콘텐츠를 박물관 운영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본 박물관에서는 특별전에 대한 VR 제작만이 아니라 앞으로 개막할 특별전에 대한 학예사의 전시 해설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전시 <고구려와 한강>부터 실시). 추후 상설전 해설도 영상으로 제작해 많은 사람이 박물관의 전시를 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Q 실감형 콘텐츠 자체가 하나의 유의미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A 실감형 콘텐츠 자체가 전시 유물을 직접 관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본 전시를 앞두고 전시 예고 영상이나 관심을 끌 만한 영상을 올리면 본 전시에 대한 홍보 효과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큐레이터에게 듣는 온라인 전시 해설

해설,
그이상의 감동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3월 13일 저녁, <인간, 물질 그리고 변형-핀란드 디자인 10000년>을 네이버 TV를 통해 온라인 중계했다. 애초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예정됐던 이 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관으로 사실상 중단된 전시였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전시장을 찾지 못한 관객뿐만 아니라, 이미 전시를 본 관객이라도 학예연구사의 깊이 있는 설명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같은 달 25일에는 새 단장한 세계문화관 이집트실을 네이버TV를 통해 중계했다. 특별전과 마찬가지로 이 전시를 기획한 학예연구관과 함께 전시장을 돌아보고, 밀도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온라인으로 중계한 두 영상 모두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라이브톡'을 통해 소통했고, 영상 중간에 퀴즈를 내 정답을 맞힌 이용객에게는 도록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특히 이집트실 영상은 5만 명 가까이 시청해 여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두 영상 모두 다시 보기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쇄도해 현재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이처럼 객관성과 사실성에 반발하여 정신성과 주관성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에 書: 한국 근현대 서예전> 온라인 전시 해설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관에 書: 한국 근현대 서예전>을 유튜브 채널(youtube.com/MMCAKorea)을 통해 선공개했다. 전시를 기획한 배원정 학예연구사가 나서서 90여 분간 전시 작품 해설을 진행했고, 이 내용은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동시 접속자 수가 500명을 넘겼고, 유튜브 영상 조회수 또한 5만 회(4월 16일 기준)를 넘긴 상태다.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채널에서도 전시 콘텐츠 관련 영상을 주로 서비스하는 'MMCA TV'의 <큐레이터 라이브 전시투어>는 전시를 기획한 학예사가 30분~1시간 동안 직접 전시장을 둘러보며 작품을 설명한다. 미리 정보를 습득할 수 있거나 전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면에서 유익하다는 평이 많다. 특히 미술관 대표 소장품 12점을 온라인(페이스북, 유튜브)으로 소개하는 <미술관 소장품 강좌> 영상에 대해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10분 영상으로 만나는 <미술관 소장품 강좌>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 관람객들과 만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코로나19로 미술관 방문이 어렵지만 집에서 편하게 미술관 대표 소장품을 감상하며 현대미술과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글 전문정, 객원 기자 사진 사비나미술관 누리집,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갈무리

- e**** 이렇게 설명 듣고 다시 전시 보면 흥미롭겠어요.
- g****** 지방에서 사는데 서울 안 가도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있어서 좋네요.
- S******* 직접 보는 것보다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좋네요.
- i**** 큐레이터님 멋진 전시기획 감사드립니다.
- s****** 채팅하면서 보니까 왕 짬싸요.
- 박**** 넘 좋아요 이런 콘텐츠!!!!
- 백*** 친구랑 전시 보러 가기로 약속했어요.
- 박**** 집에서 보는 박물관 도슨트라니 너무 재밌어요 가서 보는 거랑 또 다른 느낌 이런 기획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이 해주세요.
- 매**** 여기서 보고 실제로 보면 넘 감동일 것 같아요!!
- J******* 정말 그 시대에 저런 것이 가능했다니 놀라워요.
- 레**** 어여 코로나19 끝나고 가고 싶네요. πππππ
- F******* 꼭 가서 보고 싶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영상으로 만나는 공연

유튜브로 오피스무대



3~4월 공연을 잠정 연기한 국립극장은 지난해 가장 흥행한 작품인 국립창극단 <패왕별희> 실황 영상을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 3월 25일부터 2주간 공개했다. 전막 영상을 온라인 채널에 공개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예술가와 제작진 등 이해관계자의 지식재산권을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뿐 아니라, 불법 복제와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5월 8일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국립극장 전속단체의 주요 레퍼토리 6편을 차례로 상영한다.

'썩 온 스크린(SAC On Screen)'이라는 이름으로 공연 영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예술의전당은 3월 20일부터 2주간 유튜브 스트리밍을 진행했다. '제한적'으로 진행한 상영회임에도 회당 평균 3,000명 넘는 사용자가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회 동안 누적 시청자 수 6만 3,564명, 조회 수 73만 7,621회. 공연 영상을 보기 위해 시간에 맞춰 모니터 앞에 착석한 관객들은 실시간 댓글 기능을 활용해 "벌써 매진" "지금부터 들어오는 사람은 입석"이라며 이색적인 관람 풍경을 만들어냈다. 이에 화답하듯 공연 영상화를 담당하는 제작감독이 댓글로 작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고 관객의 궁금증에 답변을 다는 등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공연 영상화 사업은 오래전부터 공연예술계의 화두였다. 다만 국내에서는 국립극장·예술의전당 등 국공립 기관을 중심으로 공익 목적을 위해 진행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제약이 많아 공유와 활용은 뒷전인 상태다. 비록 영상으로는 무대를 누빈 예술가의 거친 호흡도, 달아오른 객석의 박수갈채도 생생하게 느끼기는 어렵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만난 공연이, 예술이 선물하는 즐거움을 상기하게 하는 '발견의 시간'이었음은 분명하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공연계의 자세

강은빈 국립극장 온라인 홍보 담당자

Q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본 반응이 꽤나 뜨겁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홍보 담당자가 느끼는 대중의 반응은 어떤가요.

A 국립극장은 우수 레퍼토리 공연 실황 전막을 온라인으로 상영하는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사업을 통해 국립극장 3개 전속단체의 대표작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전통의 현대화와 동시대화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번 온라인 상영을 통해 전속단체가 추구하는 장르적 특징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 큰 보람입니다. 전통예술 공연이 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보니, 그저 몰라서 낯설게 느껴거나 관람할 생각조차 못한 분들에게 첫 만남을 주선하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Q 공연 실황 온라인 공개를 기획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A 국립극장은 2017년부터 10분 내외 길이의 하이라이트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 대표 레퍼토리 공연 실황을 촬영해 왔고, 이번 기회에 음향과 편집을 다시 손보는 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무거워진 국민의 일상에 작은 위안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인 만큼, 기존 관객은 물론 더 많은 국민이 전통예술을 한결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작품성과 대중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대표작을 엄선했습니다. 창극의 경우 사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국·영문 자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예술가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A 한 편의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극장 내외의 수많은 인력이 필요 합니다. 이번 전막 상영을 앞두고 모든 출연진과 제작진의 동의를 얻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는데,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자 모두들 공감하며 흔쾌히 전막 상영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주셨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전막 상영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제작진의 경우, 한국에서 공연을 보지 못한 지인들에게 영상으로나마 무대를 보여줄 수 있어 좋았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Q 이번을 계기로 공연 콘텐츠의 공유·유통과 관련한 국립극장의 향후 계획이 있을까요.

A 국립극장이 제작하는 전통예술 기반 공연은 타 장르에 비해 적극적 향유층이 탄탄하지 못한 편입니다. 특히 젊은 신규 관객 개발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번에 전막 상영을 진행해 보니, 동일한 공연의 하이라이트 영상 대비 전막 영상 조회수가 약 7배에 달했습니다. 온라인 전막 상영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홍보 수단임이 분명하나 그저 '홍보'에만 그친다면 유한한 발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연계가 준비해야 할 '포스트 코로나' 현상 중 하나가 '공연 영상화'라는 것은 지금 모두가 예측하는 바입니다. 국립극장은 장기적으로 우수 레퍼토리 공연 영상화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공연 생태계의 상생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공연 실황 생중계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대중에게 가까이



→ 국립국악원의 '사랑방 중계'

12월부터 3월까지 연말연시에 걸쳐 공연을 진행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은 네이버TV와 V라이브를 통해 모든 공연을 생중계했다. 단발적인 홍보 차원이 아닌 매해 조금씩 영상 사업화를 추진해 온 결과로, 특히 올해는 멀티플렉스 CGV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상영관에서 '올해의 신작'을 시범적으로 선보였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공연장을 개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공연예술창작산실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영상 사업은 더욱 빛을 발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영상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연을 만나는 방법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현장감을 살려 공연을 '안방 1열'로 배달하는 온라인 생중계는 기존 관객층은 물론 공연 관람보다 영상에 친숙한 관람층까지 잠재 관객으로 흡수시켰다.

서울돈화문국악당은 젊은 국악 창작자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운당여관 음악회> 7회 공연을 전면 온라인 생중계로 전환했다. 국립국악원은 단순히 기존 공연을 중계하는 것을 넘어서 온라인 생중계를 위한 공연을 기획했다. 노선택과 소울소스·김윤희·박지하·하윤주·두번째달 등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다섯 팀의 국악 단체를 초청, 온라인 시청자와 적극 소통하는 형식의 토크 콘서트를 꾸린 것이다. 50분 길이의 공연은 실시간 댓글 기능을 활용해 관객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과 연주를 주고받으며 실제 공연장에서는 불가능한 소통을 이뤄냈다. 앞서 국립국악원은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관객을 위해 평일 오전 11시, 선별한 국악 영상을 한 편씩 공개하며 부담 없이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일일국악'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온라인 중계는 유튜브와 네이버TV, 페이스북 등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나 전통예술 분야의 경우 최근 TV 채널을 개국한 국악방송이 적극 지원에 나서 콘텐츠 확산에 힘을 더하기도 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지난해 공연한 작품 중 우수작을 골라 3월 14일부터 4월 5일까지 '내 손 안의 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황 중계했다. 또 관객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예술가들은 작품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공연 온라인 생중계 '힘내라 콘서트'를 기획했다. 공연이 취소되거나 피해를 본 예술가·예술 단체의



작품 12편에 무대를 제공하고, 이들의 작품을 온라인 송출하는 데 힘을 보탠 것이다. ‘힘내라 콘서트’는 4~5월간 매주 화·금요일 네이버TV를 통해 공개하며, 5월까지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

온라인 공연은 공개된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사실이나 실제 공연을 보는 듯한 수준의 음질과 화질을 보장하는 촬영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 때문에 온라인 생중계는 주로 국공립기관의 전속단체나 기획 공연에 한해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종문화회관의 ‘힘내라 콘서트’는 그 기회를 민간 단체와 나누고, 대중에게는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글 김태희_객원 편집위원 사진 제공 국립극악원

온라인 생중계, 공연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안

오정화 세종문화회관 공연기획팀장

④ ‘힘내라 콘서트’는 세종문화회관 산하의 서울시예술단이 아닌 외부 단체의 공연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여타 극장이나 기관의 지원책과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콘텐츠를 기획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가장 중점에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④ 세종문화회관은 다양한 장르를 망라한 ‘내 손 안의 극장’과 ‘힘내라 콘서트’라는 두 가지 온라인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내 손 안의 극장’은 지난해 공연한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매주 2회씩 4주간 세종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산하 9개 예술단이 총출연해 화제가 된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을 비롯해 서울 시오페라단 <돈 조반니>, 어린이 공연인 <모차르트와 모짜렐라> <베토벤의 비밀노트> 등 총 14편을 3월 14일부터 4월 말까지 선보입니다. ‘힘내라 콘서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정된 공연이 취소 또는 연기돼 타격을 입은 공연 단체 및 예술가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종문화회관이 지원해 ‘무관중 온라인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힘콘’은 세종문화회관 대관 취소 공연과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추천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연극·뮤지컬·클래식 음악 등 총 12팀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작품은 평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예술 단체와 예술가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한결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이번 무관중 생중계 공연을 통해 예술 단체와 상생·공존의 발걸음을 이어가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적 책임을 다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④ 현재 공연 중계가 몇 차례 진행된 상황인데요. 실제로 시청자의 호응도, 기존 관객층의 반응은 어떤가요?

④ 지난 3월 진행한 ‘힘콘’ <오페라 특특>은 조회수 1만 5천 이상, 지난 4월 둘째 주 진행한 ‘힘콘’ <아도이-VIVID>은 단일 공연으로 조회수 3만 5천을 넘길 정도로 시민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중계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네이버TV 실시간 댓글창에는 “수준 높은 공연을 안방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직접 객석에서 보지 못해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 다행이다” 등 좋은 감상평을 실 틈 없이 남겨주셔서 공연을 계속 관람하기를 바라는 관객 분들의 뜨거운 열망을 다시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공연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공연예술은 원래 오던 관객들이 다시 찾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연장에 오기를 망설이던 분들로부터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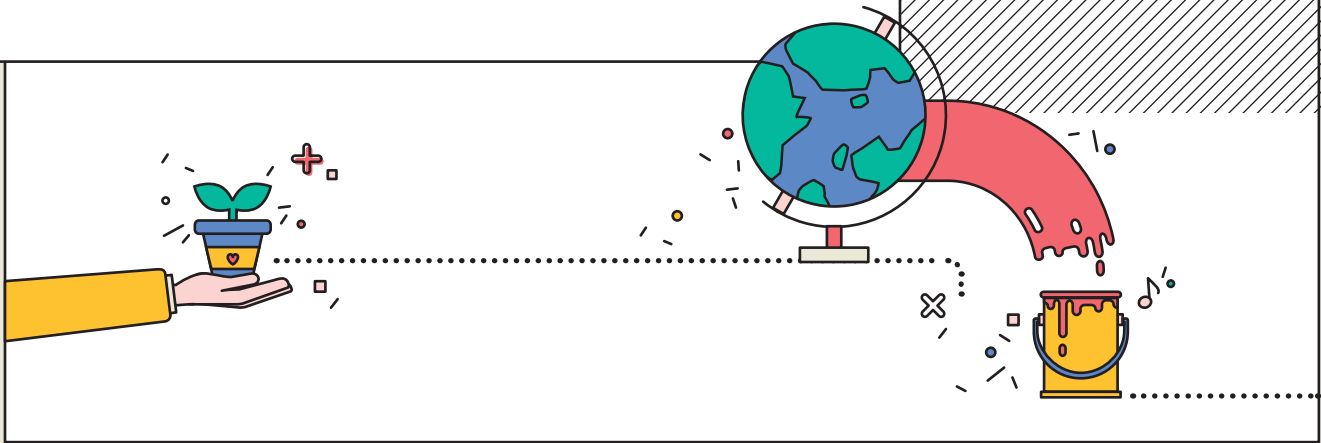
④ 이번을 계기로 공연 온라인 콘텐츠의 창작·공유·유통에 관련한 세종문화회관의 향후 계획이 있을까요.

④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지만 영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잠재 관객의 유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을 계기로 향후 기업 협찬이나 기부금·스폰서십 등 펀드레이징을 통한 재원 조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온라인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힘내라 콘서트’는 하나의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영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다 보면 저희만의 노하우가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관객 분들께서 공연예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침향을 만드는 자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의 즐거운 방식

코로나19 사태를 통과하고 있는 이 시기는 개인과 사회 전반의 각성의 시간이자, 변화의 씨앗을 품고 준비하는 시간이다. 문화예술계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코로나19 시기 이후 예술가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또한 예술은 이전과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문화(culture)’란 단어의 본질적 의미로 다시 돌아가 봐야 한다. 내 안으로 돌아와 텃밭을 일구고, 그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확대된 자아가 필요한 때다.



‘자아’의 선한 영향력이 힘을 발휘할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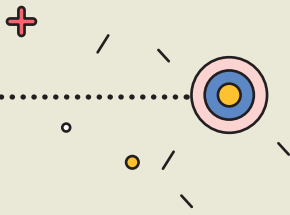
인간이 바이러스? 예술이 바이러스? 극장이 바이러스? 위기에 처한 예술가에겐 죄송하다. 글을 쓰는 나도 거북하다. 그럼에도 여기서 선 이래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냉정하게 볼수록, ‘포스트 코로나’에 잘 대처할 수 있다.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걱정하는 이때, 자연의 생태계는 조금씩 회복돼 간다. 인도의 한 지역에서는 공장 가동을 중단해 매연이 사라지자 30년 만에 히말라야 산맥이 보였고, 출입이 통제된 해변에는

멸종 위기의 바다거북이 산란하기 위해 돌아왔다.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바이러스라는 게 괜한 말은 아니다.

“자연과 인간 ‘환경과 예술’이 어떻게 바람직하게 공존할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두는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21세기의 지난 20년을 돌아본다. 2000년대에는 웰빙을 외쳤고, 2010년대의 키워드는 힐링이었다.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일수록 예술은 인간의 복된 삶과 심리적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위기에 대한민국은 오히려 주목받는다. 왜일까? 위기



의 상황에서 서구를 따르지 않았다. 코리안 스탠더드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렇다. 대한민국의 문화예술도 그러길 바란다. 지금은 ‘예술적 글로벌리즘’을 확립할 때다.

세상의 모든 바퀴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팽팽히 맞서야 잘 굴러간다. 예술의 바퀴도 마찬가지. 그간의 우리는 어땠나? 이제 구심력을 회복해야 한다. 서양-외부-타인이라는 ‘원심의 환상’에서 벗어나 한국-내부-자아라는 ‘구심의 현실’로 파고들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에선 ‘자아에 중심 두기’가 진행돼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의 화두는 자아(自我)다. 개별적 자아가 아닌 ‘확대된 자아’를 요구한다. 동병상련(同病相憐)적 자아가 돼야 한다. 세상의 모든 힘들어하는 자아를 향해, 확대된 자아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그게 예술가의 의무이자 권리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술적 바이블은 어떻게 출발해야 할까? ‘탈(脫)서구’와 ‘탈(脫)극장’을 할수록 ‘범(汎)지구’와 ‘범(汎)예술’은 조금씩 선명하게 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지금은 예술에서도 히말라야를 볼 수 있는 시기여야 하고, 바다거북처럼 새롭게 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는 시기여야 한다.

새 시대의 예술, 침향을 만드는 이의 마음으로

침향(沈香)을 아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다. 원래는 침수향(沈水香)이다. 침향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낸다. 거기에 커다란 참나무나 향나무를 잘라 물속에 잠기게 넣는다. 일반 사람의 눈에 그 게 보이질 않는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세상 사람에게 가장 이로운 효과를 주는 향기가 거기서 풍겨 나온다.

침향을 만드는 행위는, 나와 내 자손을 위한 행위가 아니다. 누군지도 모를 먼 후대를 위한 실천이다. 지금은 반성의 시간일수록 좋다. 나를 포함한 지금의 예술인들은 너무 현시적인 결과를 지향하는 것이 아닐까? 과거 침향을 만들고자 한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매우 바람직한 자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술가는 달라져야 한다. 자신이 부각되는 ‘당대적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훗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후대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복잡한 세상일수록, 원론적 화두에 천착해야 답이 나온다. 문화예술이란 무엇인가? 문화는 영어로 ‘culture’.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 ‘농업’이라는 뜻의 ‘agriculture’에서 유래한 말이다. 우리가 그간 유목 민족처럼 예술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문화는 경작(耕作, agriculture)이다. 한곳에서 계속 땅을 일구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같은 공간에 계속 있어주길 원하고 있다. 바퀴는 게 바람직하다. 부유(浮游)하는 유목민(nomadic tribe) 같았던 예술관을 버리고, 이제부터 침윤(浸潤)하는 정착민(agricultural people)이 되자! 문화란 본디 자신이 서 있는 땅을 딛고 파고드는 것이지, 멀리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게 아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예술적 지향은 ‘퍼져가기(spread out)’였다는 걸 자인하자. 예술적 영토 확장의 심리가 내재해 있었다. 그건 타인의 공간에 대한 침입일 수 있다. 내 공간을 지킨 것이 아니라, 남의 공간을 향해서 계속 뺨어가기만 했다. 그렇다. 원심력만 강했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슬기로운 예술 생활은 ‘편히 앉기(settle down)’에서 시작돼야 한다. 내가 있는 이곳이 꽃자리라는 믿음으로, 조용히 한곳에 자리를 잡고 정착하면서 계속 땅을 일궈야 한다. 예술적 뒷밭을 가꾸야 한다. 그간의 과도한 ‘노마드 기질’이 예술적 바이블을 전파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극장이 그런 공간이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나 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술적 바이블의 전파자였다는 게 얼마나 섬뜩한 현실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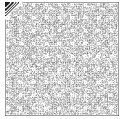
바이블이 침범을 일삼는 상황에서, 예술과 공연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까? 여태까진 구호에 가까웠던 ‘웰빙’과 ‘힐링’에 실제 ‘예술을 적용해서, 이 시대를 사는 이들의 삶을 채워주고 비워주는 효과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먼 훗날을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 줘야 한다. 침향을 만드는 자세가 지금 우리의 역할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술의 가치는 크게 둘이다. 첫째, ‘불안한 삶 속에서 안정을 회복하는 기능’이다. 둘째, ‘후대를 위한 바람직한 예술적 기반의 구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예술가의 의식(consciousness)과 공연의 방식(procedure)은 분명 존재한다. 같이 캐내보자. 함께 일궈나가자. 위기가 기회다.

글 윤중강_음악평론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국수,
국수 같은
시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이상국 시인



그리운 추억을 떠오르게도, 허기진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는 국수.
 시인 이상국은 국수와 닮았다.
 예술가의 삶이 그 작품과 반드시 일치하진 않겠지만,
 이상국 시인은 자신의 작품 속 화자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어둠이 허기 같은 저녁/ 눈물자국 때문에/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사람들과/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다”(〈국수가 먹고 싶다〉 중)는 구절같이
 그는 사람을 배려하고 보듬는다.

1976년 《심상》을 통해 등단해 50여 년 동안 한국의 대표 시인으로 사랑받아 온 이상국 시인. 그가 2019년 12월 문학 자전 《국수》를 펴냈다. 《국수》는 이상국의 대표 시편뿐 아니라 산문, 작품론, 연보 등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책이다. 출간 즈음 그는 한국의 대표 문인 단체인 한국작가회의의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상국 시인과의 그릇 국수처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려운 시국,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으로서

트레이드마크 같은 병거지 모자를 쓰고 나타난 이상국 시인은 ‘권위적’이란 말과는 거리가 멀었다. 부드럽고 신사다웠다. 그의 친근한 모습은, 대선배와의 인터뷰에 잔뜩 긴장한 분위기를 한결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런 시인에게 커다란 단체의 이사장 자리가 부담스럽지는 않았을까 궁금했다. 한국작가회의(이하 작가회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소감에 대해 묻자 그는 ‘소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막중한 일이기도 하지만 일단 하게 됐으니 잘해야지요. 무엇보다 지방과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싶어요. 수도권 위주로 편성된 문화예술계이지만, 지방의 문제에 귀를 기울여 상생하고 싶습니다.”

작가회의는 본회·지회·지부를 포함한 거대한 단체다. 여러 면에서 운영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국 시인

은 소통의 힘을 믿고 있었다. ‘소통’이란 말엔 남의 말을 경청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지 않은가. 큰소리를 내기 이전에 남의 말에 귀 기울이겠다는 자세가 그에게서 엿보였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문화예술계가 어려운 시기에 취임한 것이니 그 시작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인터뷰가 진행된 4월 둘째 주만 해도 초유의 ‘작가회의 온라인 이사회’까지 예정돼 있었다.

“과거 선배 이사장과 문인들이 작가회의를 이끌어갈 때는 지금보다 사회·경제·정치적으로 더 어려울 때였지요. 그에 비하면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는 그나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시국이 시국인 만큼 어려운 점도 있어요. 감염병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가회의의 사업이 지체되거나 활력을 잃는 것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작가회의는 여러 의미에서 혁신적인 집행부를 꾸리게 됐다. 사상 처음 직선제로 사무총장을 뽑기로 돼 있었는데, 그 또한 문자 투표와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상국 시인은 그에 대해 “사상 첫 직선제 사무총장의 선출로, 제도적으로 훨씬 건강해지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계에 대한 제언

작가회의 이사장으로서의 일을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문학, 나아가 한국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이어졌다. 이상국 시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인 단체가 재정적으로 힘든 점에 대해서 작가회의 이사장으로서 안타까워했다. 이것은 문화예술계의 문제이기도 했다.

“한국은 잘사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문화 선봉을 자처하는 단체가 이렇게 쪼들린다는 것이 아쉬워요. 한국의 문화예술인은, 조선 이후 식민지를 거쳐오며 한시도 편한 적이 없습니다. 늘 어딘가에 저항하거나 개혁을 하는 계층이었습니다. 또 문화예술인은 의인이나 지사적 기질을 갖추고 있었고요. 그러니 돈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인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은 적당히 가난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제 이런 사회적 편견도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더불어 그는 “한 나라를 지탱하는 문화예술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떠들썩한 조명을 받고, 방탄소년단 같은 팀도 해외 음악 차트에서 큰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학은 문화적 반열에서 보면, 저조하거나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벨상의 여러 수상 분야 중에서도 문학을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문화 중에서도 문학이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한국문학이 뒤쳐진 것은 문학 하는 사람들에게 1차 책임이 있겠지만, 그전에 국민의 무관심도 한몫했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개인별 도서 구입량이 일본의 반도 안 된다는 자료를 본 적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등단 이후 50여 년 시를 써온 이상국 시인도 공들여 쓴 시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원고료를 받는 실정이다. 작가가 작품에 투자한 시간을 최저임금 같은 물리적 단위로 환산할 순 없지만, “평생을 훈련한 기술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원고료를 받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라는 그의 말이 공감됐다. 국가가 문화 창달 면에서 “좋은 책을 낼 수 있게 돕는다거나 고료를 뒷받침해 주는 방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물론 작가인 그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아니다.



“젊은 작가를 격려하고
좋은 문학이 나오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 같은 원로 문인이 아닌, 젊은 후배 작가들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였다.

“젊은 작가들에게 문학이 그저 아르바이트 정도가 돼버리면 우리 문화의 앞날이 밝아지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며 좋은 문학이 나오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문학 단체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정부의 배려나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작가로서의 삶을 정리하는 책, 《국수》

이상국 시인의 문학 인생을 정리하는 자전 《국수》 또한 강원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발간된 책이다. 문화 정책으로 한 작가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그에겐 “보람 있고 기쁜 일”이었다. 흥미로운 부분은 그와 함께 선정된 작가가 소설가 전상국 선생이라는 점이다. 한국문학의 두 거장의 이름이 같다는 것이 재미있었다. 자연스럽게 《국수》와 관련된 이야기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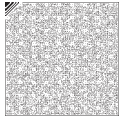
“50년 가까이 문학을 했으니 그에 대해 정리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작을 신고 산문도 좀 신고 작품 연보와 서지도 실었어요. 내가 나를 정리한다는 면이 참 좋았습니다.”

책 제목 《국수》에도 뜻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또 독자들, 그리고 문학의 동반들과 국수를 나눠 먹어야겠다는 마음에 제목을 붙였어요. 내 시 중에서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시가 <국수가 먹고 싶다>이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이상한가 싶었는데 나중에는 잘 지었다 싶었어요. 국수가 부담 없고 소화도 잘되지 않습니까.”

함께 나누는 국수처럼, 함께 나누는 시. 이상국 시인의 문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로 ‘국수’만한 게 더 있을까.

2022년은 그가 등단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그를 기념할 만



한 계획을 준비 중인지 물으니 그는 50주년, 60주년이 됐다고 해서 무언가를 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저 “힘이 되는 데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의 작품을 만들어보려 한다”는 것이다. 존경받는 시인에게 또 어떤 공부가 필요한 것일까.

이상국 시인은 4월 말 동시집도 출간했다. 그는 처음으로 써낸 동시집을 “마지막이 될 동시집”이라고 표현했다.

“동시가 참 어려워요. 말랑말랑한 사고로 써야 하는데,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고를 부드러운 언어로 감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딱딱한 어른의 생각을 부드러운 아이들의 형식에 맞추니 참 어색하더군요.”

늘 공부해야겠다고 말하는 그는 겸손한 사람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완성된 그의 동시집이 기다려지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상국 시인은 마지막으로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했다. 오는 5월 콜롬비아 보고타(Bogota)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도서전이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다는 것이다. 그는 전상국 소설가와 함께 도서전에 초청된 상황이었다. 가을쯤 여력이 된다면 그곳에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와 함께 우리를 달래주는 위로의 한마디도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국가나 문화 등 모든 게 다 변화했어요. 아주 큰 변화죠. 그래도 국민들이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늘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국수’ 같은 시인, 그다운 말이었다.

글 권민경_시인, 미술평론가 사진 김창제

착한 소비를 통해 위기에 ‘함께 맞서는 가치’를 실현하다

오비맥주 버드와이저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

버드와이저와 서울문화재단이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를 응원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을 진행했다. 1876년 탄생해 단일 브랜드 판매량 세계 1위의 프리미엄 라거 맥주 버드와이저가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는 독특한 행보를 알아봤다.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기념해 전 세계 각지에서 당일 판매된 버드와이저의 수익금을 의료진에게 기부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역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등 오비맥주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계기로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까지 진행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전개한 이번 캠페인 역시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노력의 일환이며, 소비자들이 ‘착한 소비’를 통해 위기 속에서 ‘함께 맞서는 가치’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버드와이저는 국내 아티스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에 힘쓰는 등 다방면으로 창작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브랜드가 추구하는 자유와 열정에 대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바조우·강요한·그라플렉스(Grafflex)·이덕형(MadeinDHL)·레이버스(Rarebirth)·조대(Jodae) 등과 포토그래퍼 임수민,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아티스트 등 2017년부터 다양한 국내 아티스트와 협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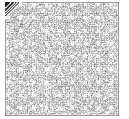
특히 이번 코로나19 이슈로 예술인 10명 중 9명이 전년 대비 수입이 감소해 복지 차원의 생활 자금 지원 등 긴급 조

치가 시급하다는 면에서, 급속도로 얼어붙은 문화예술계 환경에서도 꾸준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했습니다.

젊은 아티스트에게 포커스를 두고 지속적인 지원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많은 예술가 중에서 특히 젊은 아티스트를 후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전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응원하는 버드와이저는 한국 문화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랜 시간 젊은 아티스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새로운 뮤직 아티스트 발굴의 플랫폼으로 신인 아티스트를 대중에게 주기적으로 소개하는 버드엑스비츠(BUDXBEATS), 젊은 거리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한 프로젝트 B(Project B) 등이 이러한 활동의 일환입니다.

이번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진행도 아티스트 창작 집단인 스튜디오 콘크리트(Studio Concrete)와 함께 했는데, 그 계



기가 공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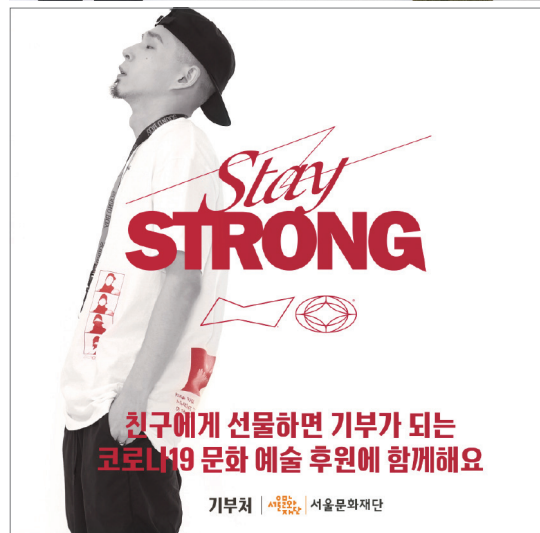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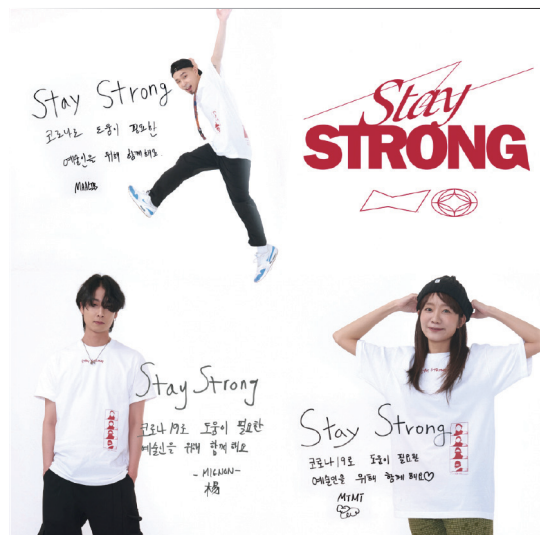
스튜디오 콘크리트는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세계를 구축한 채 집중적으로 좋은 작업을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신인 아티스트의 전시를 여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창작자들과 새로운 작품 판매 플랫폼을 개척하는 등 단순 예술 콘텐츠 소비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의

창작과 소비의 가치 체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버드와이저는 이러한 스튜디오 콘크리트의 철학에 공감해, 소속 아티스트와 직접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예술인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문화예술을 위해서 고민하고 아티스트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국내 문화예술계에 매우 고무적이며, 특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에게 큰 힘이 될 거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안정되고 다시 자유로운 문화 활동을 하고, 즐길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맥주 브랜드인 버드와이저가 이렇게 다양한 문화 지원 활동을 한국에서 펼치는 것은, 글로벌 브랜드로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년간 꾸준히 '버드엑스(BUDX)'라는 플랫폼을 통해 음악, 패션, 예술에 대한 활동 및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브랜드 정신에 맞게, 남들의 시선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즐기는 것을 자신 있게 추구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전하고자 합니다.

글 김이경_서울문화재단 메세나팀 사진 제공 오비맥주 버드와이저



스태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 이미지

스태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

버드와이저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를 응원하기 위해 창작집단 '스튜디오 콘크리트'와의 협업으로 한정판 티셔츠를 제작, 4월 30일까지 '카카오키 선물하기'를 통해 판매했으며 판매금 전액과 추가로 동일한 모금액을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서울문화재단에 기부, '코로나19 관련 예술인 문화활동 지원' 계획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젊은 아티스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트서울 ART SEOUL
기부오피트게더 ONE TOGETHER

〈아트서울 기부투게더〉는 적지않은 의미 있는 예술 프로젝트부터 우리의 삶을 바꿀 문화도시 프로젝트까지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예술 기부 브랜드입니다. [문화+서울]에서는 〈아트서울 기부투게더〉를 통해 예술 기부로 함께하는 기부자의 인터뷰로 아름다운 나눔 정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서울 할나

살아가는 건
마람 부는 날
짧다지만,
그래도
오월이면 디오니소스
다시 돌아와
파안대소(破顔大笑)
못 생명들
푸른 취기(醉氣)에
흥이 오르는
나날도 오나니.

〈삼청공원의 신록〉
글·사진 김영호_서울문화재단



지역에서 예술가는 뭘 해야 되지?

코로나19와 지역 문화 생태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토론회의 풍경도 바꾸어놓았다. 공유성북원탁회의¹⁾는 정기모임 겸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토론회의 취지는 코로나19 시기에 문화예술과 지역 예술가의 역할을 논의해 보는 것이었다. 재난 시대의 구조적인 문제,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서부터 현재 문화예술 지원의 가치와 방향성, 지역에서 예술가가 재난을 대처하는 방식,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미래 등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일시 2020년 3월 31일 오후 3~6시
장소 성북정보도서관
사회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소장
패널 김용택 공유성북원탁회의 공동위원장,
 성북문화예술교육가협동조합 '마을온예술'
 오선아 공유성북원탁회의 공동위원장, 배우
 유영봉 연극 연출가, 천장산 우화극장 공동운영
 이원재 시민자치문화센터 대표
 이현 성북문화재단 문화정책팀
주최 공유성북원탁회의, 성북문화재단
토론회 영상 youtu.be/4-5jnbrBpz8

¹⁾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성북 지역의 문화예술, 예술 공간, 기획자 등이 모인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공유를 통한 지역 재생 실천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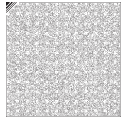
1부

재난 시기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지역 문화예술의 역할

정기황 요즘처럼 안녕이라는 말을 무겁게 해야 하는 시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최근 영국 언론 매체 《가디언》 캐서린 바이너(Katharine Viner) 편집장이 ‘언론사의 11가지 약속’이라는 글을 썼는데 토론회 취지와 맞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힘 있는 사람보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도하겠다. 둘째, 기후위기나 환경문제를 열심히 보도하겠다. 셋째는 일상 속의 작은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하겠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역에서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희망을 만들어내는 역할 같습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른 지역, 도시의 문화 활동에 대해 성북에 보내왔습니다. 가장 전달하고 싶은 얘기 중 하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가뿐 아니라 세계적인 연대가 더 필요하고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장 코로나19와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 있고, 기후위기나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도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원재 지금 문화예술계와 관련된 분들이 화가 난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원래 힘들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인데 적절한 공공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문화예술을 부차적으로 생각하거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을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그냥 행사를 못 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문화예술에 대해 지금의 어려움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쟁점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재난 자본주의나 위험 사회가 이미 가까이 왔고 코로나19도 결국 인간의 욕심, 생활습관과 관련된 거잖아요.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고 많은 재난이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은 그런 걸 더 깊게 들여다보고 표현하고 거기에 대한 논쟁, 사회적 가치, 희망 혹은 위로, 치유 등을 하는 인간 행위라고 생각하는



데요, 언제부터가 문화예술이 단편적인 행위에 대한 정책이나 상품으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를 통찰하고 소통하고 논의하는 예술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술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국가도 문화예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토하고 비판해 온 문화예술 지원 체계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변화를 얘기해야 하고요. 코로나19가 아니어도 많은 문화예술인은 1월에서 3월까지 일이 없었어요. 우리의 권리를 이 시기에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유영봉 연극 쪽에서는 서울시의 '잠시멈춤' 협조 요청 공문이 예술가에 대한 공감대 없이 내려왔다는 점에 반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극장은 밀폐된 공간이라 조심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조치를 취할 텐데, 협조 요청의 마지막 문구는 '별금'으로 끝나는 거죠. 공문의 공감대에 대해 얘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흑사병이 돌던 14세기 유럽에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 나갈 때 종교계에서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근데 목사·

신부들도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인본주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어요. 지금 당장 힘드니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나서 어떤 사회가 기다리고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기황**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잘 막아내고 지원할지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공동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경험 자체도 중요하고 오히려 세계와 연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의 세계와 나라와 지역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김용택 저도 지금의 위기에 드러난 사실이 많다고 생각해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나 미국의 대처를 보면서 우리가 결코 앞만 보고 달려온 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한 부분과 앞으로 할 일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자주 만들고 문화예술인들도 항상 이를 염두에 두고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각 지역에서 장르별로, 또 통합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꼈어요.



온라인으로 중계된
공유성북원탁회의
토론회 현장

정기황 지역의 문화적 자산과 공감대를 기반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택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면 개학을 할 텐데 학부모 입장에서 만약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코로나19에 걸린 사실을 친구들이 알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소외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만반의 준비를 한다 해도 그 문제가 고려되지 않으면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자녀가 걸려서 왕따를 당하면 그 아이의 상처는 누가 어떤 식으로 보상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정기황 자녀가 있는 집은 다 힘들 거라 생각해요. 정부도 물론 역할을 해야겠지만 공동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유영복 얼마 전에 60대 남성이 낫을 들고 약국에 간 사건이 있었어요. 재난 시대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선아 그저께 새벽에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친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문득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지금 이게 의미 있나.' 이런 식으로 우울감이 온 거예요. '코로나19 후유증인가'라고 툭 던지니 친구들끼리 위로하고 넘어갔지만 이게 더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원재 저는 한국이 여전히 국가주의적이고 강력한 경찰 국가이기 때문에 방역이 잘된다고 생각해요. 국가는 결국 하나의 상징체계이고 권력체계이지 국가가, 뛰어난 대통령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잖아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프레임이 국가가 무언가를 해주는 것에 걸려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재난 시대나 위험 사회에서 시민 개개인의 관점과 실천, 시민 간의 연대가 중요하고 그래서 지역이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지역이 더 발달하면 더 많은 안전망과 힘이 될 수 있는데, 우린 여전히 톱다운식으로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해요. 국가적 관점과 국가 단위의 안전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지역, 삶의 공간을 코로나19를 계기로 같이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현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역 공동체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과 문화예술로 연결되는 망으로 인상 깊게 본 사례가 제주였어요. 지금 마스크가 부족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구입하러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제주는 수도권에 비해 인구밀도도 낮고 이동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 키친타월과 고무줄 2개면 만들 수 있다면서 사진도 찍고 글로 설명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공유한 사례를 봤거든요. 자급자족에 가깝고 공동체를 삶에서 계속 체감할 수 있는 방식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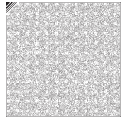
정기황 마스크 구입에 대한 정보 해석 능력이 없으면 어르신 입장에서는 공포감을 갖게 되죠. 지역 공동체가 정보를 제공해 주면 공포와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김용택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양한 구성원들이 빠른 시일 안에 모여서 각자의 영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방식의 매뉴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현 우리나라가 개방성과 투명성으로 코로나19 시국을 잘 헤쳐가고 있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이 정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도 중요하고 이들을 계속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선아 이런 대화를 하면 '나는 배우이고 지역 안에서 어르신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뭘 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지금 같은 재난이 생길 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동료들끼리 같이 고민하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예술가로서 많이 했어요.

이원재 지금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초·중·고교 개학인데요. 개학과 수능에만 관심 있고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일대일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감수성 교육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문화예술의 역할인데 그런 고민이 없어요. 지금 취소된 행사를 나중에 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도 잘못된 겁니다. 그냥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재난 시기의 문화예술



적 접근과 의미 있는 활동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해요. 문화예술계에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원 체계에 대한 가치와 철학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유영봉 이야기의 본질은 코로나19 시국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일종의 휴가라고 상정해야 해요. 휴가 기간에는 휴가비가 나오잖아요. 창의력은 그런 휴가 상황에서 나오고 보충이 돼요. 코로나19에 대한 영감을 작가들이 놓칠 리 없고요. 이탈리아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창문 열고 연주한 것은, 극단에서 제안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려면 최소한 지금 상황에 대한 지원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유를 갖고 대안을 찾는 거죠.

김용택 예술교육과 관련 있는 교육청 얘기를 하자면 사실 학교가 개학을 하느냐 마느냐에만 집중돼 있지 이에 따른 예술교육, 예술강사 문제는 뒤로 밀려 있어요. 급하니까 논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겠지만 과연 정말 시간이 없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두 달 동안 관계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배려는 전혀 없고 그런 모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여전히 교육청의 방식이 후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기황 예술강사들은 그냥 대기하고 있나요?

김용택 다 미뤄졌고, 요즘 얘기 나오는 건 온라인 강의를 개인적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기황 대기 시간을 노동 시간으로 상정하지 않는 거죠?

김용택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것보다 논의 자리도 만들지 않고 제안할 수 있는 경로 하나 없다는 것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정기황 주로 임시직 얘기를 하는데 예술가도 거기에 포함돼요. 학교 예술강사의 경우도 대기 시간이 노동 시간이어야 할 것 같거든요.

김용택 그 시간을 활용하면서 선의의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의견 나누고, 행정상 가능한지 확인받고 싶은데 위급한 상황이라고 자꾸 막아버리면 결국 남는 것은 불만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2부

문화예술 지원 구조의 문제와

향후 과제

정기황 이제 문화예술과 지역에 집중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북(e-book) 무료 서비스처럼 갖고 있는 것을 오픈해서 같이 하는 것이 문화예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요. **이원재** 저는 무엇보다 질병이나 재난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역할처럼 문화 영역에서도 재난 사회에 대응하는 강도 높은 구조를 준비해야 해요. 선심 쓰듯 지원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토론 과정을 거쳐야 좋은 정책과 지원이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지원 구조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원이 특정 시기에만 몰릴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게 결국 문화예술이잖아요. '집콕'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문화예술 콘텐츠나 관련된 행위들이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죠. 이제 지원 체계를 질적으로 전환시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실행돼야 합니다. 한편으론 문화예술가들이 다음을 준비할 수 있고, 지금은 생존할 수 있는 지원을 바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김용택 학교에서는 예술교육을 수업의 하나로만 생각하고 강사들의 역량에만 맡기는 게 현실이에요. 예술교육도 가치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고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같이 논의하지 않는 이상 풀 수 없는 상황이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의 일원인 주민과 예술가, 교육가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서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현 건별로 칸막이 치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유형별로 어떤 지원을 더 세밀하게 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재 우리 사회는 예술 정책이나 예술기관의 독립성이 매우 약하잖아요. 중앙정부보다는 광역, 광역보다는 기초, 기초보다는 민간, 민간보다는 개인이 더 많은 감각과 일상성을 갖고 있는데요. 현장과 당사자의 감각을 존중

하고 여기에 맞는 정책을 지원하는 체계면 좋은데 우리 문화 정책은 그 반대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나 권한이 매우 취약해요. 오히려 가장 인위적이었던 경계가 이런 시기에 허물어진다고 생각해요. 예술교육만이 아니라 예술치유, 생활문화이든 생활예술이든 많은 칸막이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현장에 있는 동료들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재난 시기에 더 많은 시민이나 예술가들이 인간의 삶과 생존을 고민하잖아요. 일상적인 상황이 아닐 때 모든 문제점과 한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연대하면 좋겠습니다.

유영봉 성북구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방향을 우리가 설정하고 책임진다는 선언이 있어야 지역이라 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지원 정책에서 원래 이 시기는 보릿고개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지원 신청이 폭주하고 경쟁률도 높아졌고요. 예술가는 평가받는 입장이 아니라 당사자가 돼야 해요.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거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예술가들이 할 수 있을까요. 지원 정책이 공급자 위주로 가는 것도 문제예요. 자본주의 논리 아래 '이 정도 지원해 줄 테니 이걸 공급하라'고 하는데, 예술이 공급하는 건가요. 공급하는 입장을 어떻게 재설정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 해요.

이원재 보릿고개는 행정편의주의와 성과주의 중심의 예산 집행 때문에 생깁니다. 지금 봄가을에 몰아서 하는 걸 펼치면 돼요. 수천 명이 모여야 좋은 예술인 건 아니잖아요. 프로세스 자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연출을 하려면 계획서를 쓰고 예산 짜고 돈 받아서 그걸로 작업해야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미 검증된 작업이 가치가 있다면 사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년 지원을 만드는 거예요. 단년 지원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예술가도 작업하다 없어지기도 하고 더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3년 계획으로 지원하면 합리적인 평가를 해서 계획대로 가거나, 문제가 있으면 합의하에 중단할 수 있고요. 행정이 상상하지 못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요. 오히려 이런 시대에 더 적극적인 실험과 상상을 해보자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협력적 생태계는 사실 지역에서만 가능하지 국가 단위에서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단위, 동네, 마을에서 지속 가능한 작업이나 삶을 위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전환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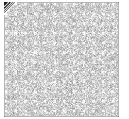
이현 지금 가장 두려운 상황은 코로나19 시국이 잦아들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반기에 거의 모든 문화 사업이 취소나 연기되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그 후유증을 겪어내면서 과제가 남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바로 사업으로 돌아갔을 때 정보가 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봉 우리나라는 대체로 예술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행정에서 방향을 설정할 때 예술가들에게 자문하지 않고 그냥 내려온 단 말이에요. 청년층은 더욱 수동적인 입장에 있어요.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는데도 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이원재 사실 문화재단 중 20년 넘은 곳이 거의 없어요. 서울문화재단도 아직 20년이 안 됐잖아요. 문화재단이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곳이 아니라 협력하는 공공기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 많은 시민이 고마워하고 응원하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민영화를 반대하며 의료 시스템을 지킨 노력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 빛을 보는 거예요. 문화예술 정책도 그런 노력이 쌓이면 재난 시기에 시민 편에서 혹은 사회적 가치를 위해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기황 지금 코로나19로 콘텐츠 생산자이자 시민으로서 예술가가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역과 주변의 공동체가 회복력을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묻지도 않고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용택 지역에 나오는 예산의 목적과 원칙은 건드리지 않



으면서 예술가나 예술강사들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기초재단에서는 행정과 운영에 힘을 두고 활동 영역과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하는 방식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 예술가 은행이라든지 보험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드러내고 얘기할 시기 같습니다.

김용택 기초 단위에서라도 예산이 펼쳐지고 기획을 논의하면 좋겠고요. 교육 부문에서 특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선아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라는 프로젝트를 꾸렸어요. 소설과 희곡을 배우들이 읽고 녹음해서, 효과 라디오에 SD카드를 넣어 동네 어르신들에게 배달하는 거예요. 배우들과 전화 통화하면서 대화하고 안부를 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기황 어르신들에게는 코로나19보다 외로움이 더 큰 재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방식의 연결고리를 찾아나가는 것이 예술의 중요한 역할 같습니다.

유영봉 우리가 선언을 만들어보고 예술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코로나19에 관한 글을 모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술가들은 제안하면서 창의력이 나오거든요. 한 명씩 들어가는 전년도 가능하고, 새로운 스타일의 공연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요. 지역과 친구들이 있고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선언부터 구체적인 행동까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원재 문화적인 관점에서 소통과 치유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예술가 혹은 문화생산자와 기획자들이 재원을 운영해 보는 경험, 사람이 있는 문화라고 강

조한 문재인 정부 문화 비전을 올 하반기에 해보자는 결정을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데 창작준비금 확대와 같이 예술가 생존에 대한 긴급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취소된 행사성 사업들의 경우 이미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행사 자체는 하반기로 연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취소 결정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순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반기의 경우도 가능한 수준에서는 공공 행사 중심으로 최대한 미리 취소를 결정해서 불안정한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문화예술 생태계 자체에,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전환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계획 수립과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치 장치가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등에 코로나19를 비롯해 재난 시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화적으로 대응하는 긴급대책TF 같은 것이 협치 테이블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현 바이러스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다 연결돼 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것 같아요. 확산이라는 무서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건강한 상호의존성에 기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황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사회에서 같이 사는 사회라는 것을 느낀 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굉장히 뜻깊은 얘기를 같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정리 전민정, 객원 기자, 문화정책 연구·기획 사진 칼라TV 유튜브 갈무리

(왼쪽부터)
오선아
공유성북원탁회의
공동위원장,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소장,
유영봉
연극 연출가,
이원재
시민자치문화센터 대표,
김용택
공유성북원탁회의
공동위원장,
이현
성북문화재단 문화정책팀

베를린, 키워드로 걷다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베를린에서 만난
문화예술과 도시재생의 단어들

런던처럼 근사하지도, 파리처럼 화려하지도, 뉴욕처럼 세련되지도 않지만 역설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 잘 모아놓은 도시가 베를린이다. 이제 베를린은 뉴욕이나 파리지앵보다 더 '핫'한 존재들이다. 세월을 이어 내려온 전통적 예술에 도발적인 서브컬처를 품으며 이 도시는 또 다른 매력을 더해가고 있다. 생태, 노마드, 재생 등 새로운 키워드가 베를린의 새로운 도시 정신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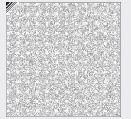
사연은 이랬다. 2020년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음악제(Salzburger Festspiele)가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 이를 기념하는 행사로 축제의 미래를 모색하는 글로벌 세미나에 한국 참가자로 초청됐다. 게다가 행사 장소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무대인 레오폴드 궁이라는 사실은 매우 설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주일간의 뽁뽁한 세미나 일정만으로 유럽 왕복을 감수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아까워 일주일 먼저 와서 오랜만에 개인 시간을 갖기로 야무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출발 즈음해 코로나19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약이 심해지던 시점이라, 나의 참석에 대해 다른 참가자나 주최 측이 가질 우려가 부담된 것도 사실이었다. 그래서 가더라도 꺾다놓은 보릿자루처럼 멀찌감치 떨어져 구석에서 참관만 할 상황도 각오했다. 설마 그런 규모의



1 크로이츠베르크의
그라피티
2 크로이츠베르크
박물관 전경



국제 행사가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은 상상하지도 않았지만, 현지 도착 후 확인한 것은 비행 도중에 와 있던 행사 연기 통지 메일.

갑작스레 빈 일정으로 잠시 망연자실했지만, 선물 같은 이 시간을 잘 보내야 했다. 그렇다면 새 행선지는 주저 없이 베를린. 자체적인 '베를린 열흘 살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내게 스스로 정한 원칙 딱 한 가지, 그곳에서는 무조건 걷는다. 모바일 운송 플랫폼 우버와 지하철 우반(U-Bahn)을 이용하면 방문객에게도 이동의 불편함이 전혀 없으나, 도심 걷기를 통해 예술적 영감을 만끽하며 재충전을 하자, 뭐 이런 정도의 느슨한 계획을 세우고 이 도시를 스스로 정한 키워드에 따라 탐험했다.

섹시 베를린 도착 후 거리에서 첫눈에 들어온 것은 "AMT ABER SEXY" 라는 옥외 홍보물 문구. 독일어를 모르지만 문장의 맥락으로 짚이는 게 있다. 2000년대 초 클라우스 보베라이트(Klaus Wowereit) 당시 베를린 시장이 한 유명한 말, "베를린은 가난하지만, 섹시하다(Berlin ist arm, aber sexy)." 이를 패러디해 만든 말인데, 대강 눈치로 번역하면 '공공기관·관공서(amt)지만 매력적이다'. 우리 식으로는 '정부 2.0 박람회' 정도로 유추된다. 그렇잖아도 딱딱하고 원칙에 충실한 국가인데 관공서는 오죽했을까, 그런 선입관을 깨고 이제 공공행정도 혁신적으로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예술 이 말이 나오던 당시 베를린은 통일 독일의 수도가 됐으나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그러나 많은 예술가가 이 도시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대안적·실험적인 사람들이 모여들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며 도시의 매력을 높여가기 시작한다. 이른바 크리에이티브 클래스의 새로운 서식지가 돼가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유럽치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도 한몫했다. 우리

나라의 예술가도 임선혜·조성진·성시연·김선옥·선우예권 등이 이곳을 거점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장벽 내 일생 첫 베를린 방문은 정확히 30여 년 전. 해외여행 자유화 직후 당시 유레일 패스를 들고 유럽 배낭여행을 한 1세대가 나다. 많은 도시 중에서도 가장 호기심이 가는 곳은 베를린. 통일되기 전이라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 있고, 당시 베를린만 금단의 땅 동독 영토 안에 섬처럼 갇혀 있던 터였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베를린으로 가는 길은 사뭇 긴장의 여정이었다. 어린 나이에 공산국가 영토를 지나고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김문소인 체크포인트 찰리에서 스탬프를 받으면 잠깐 동독 땅을 밟고 올 수 있었고, 먼발치에 서 있는 높다높은 방송탑은 여러모로 서독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동독의 자존심으로 기억한다.

통일 이후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냉전의 상징 인물이던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는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을 연주함으로써 전 세계에게 감동을 전했다. 베를린에 사는 지인들은 베를린 장벽의 콘크리트 조각으로 만든 기념품을 보내오곤 했다. 이제 당시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갤러리·박물관·조형물 등으로 꾸며진 활기찬 관광지가 돼 있다. 지금은 검문소를 가운데 두고 옛 미군 관리 지역에는 러시아문화원이, 소련 관리 지역에는 맥도날드가 있으니 아이러니하다.

대안 베를린은 대안적 라이프스타일 수행자의 등지다. 미국형 히피와 유럽형 보헤미안 문화를 합친 듯한 특징의 서브컬처가 시내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 문화 다양성이 더욱 풍부해졌다.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예술적 결과물들은 베를린이 독일 순혈주의 클래식 예술만의 도시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런 문화의 게토라 할 수 있는 크로이츠베르크 지역의 아우라는 실로 이러한 매력의 극치를 보여준다. 허름한 건물을 개조한 크로이

츠베르크 박물관은 도시 아카이빙 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노인 도슨트가 덩덤히 건넌 오디오 가이드의 설명을 좇다 보면 이 지역의 변천사를 상상하게 한다.

재생

그라피티, 스쿼팅(squatting·빈집을 무단 점유해 그곳에서 지내는 것), 아방가르드, 버스킹, 타투, 요가, 공예, 디자인, 비건, 파티, 시장 등은 이곳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독립예술가와 함께 기존 이주자와 새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은 지역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옛 동독 지역에 방치된, 소유권이 불분명한 건물의 재활용에서 기인한다. 장벽이 무너지고 왕래가 자유로워진 옛 동독 지역은 새로운 해방구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래서 거리에서 발견하는 슬로건이나 홍보물, 상호 등은 여전히 전투적이고 공격적이다.

관광

그러나 이 음습함과 긴장감, 그리고 각종 정치적인 이슈들은 역설적으로 베를린 관광의 주요 소재가 돼가고 있다. 베를린은 전후 복구를 시작으로 옛 산업 유산의 활용, 구동독 지역 개발, 원도심 활성화, 녹지 공간 확충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이어지는 난제의 도시이기도 하다. 특히 공업 역사가 오랜 이 나라의 방대한 산업 유산의 재생과 활용에는 많은 재원을 들여 부흥을 꿈꾸고 있다. 한국에서도 공연한 극단 베를린의 연극〈태그피시(Tagfish)〉의 스토리를 보면, 이런 일은 언제 올지 모르는 투자자와 관광객으로 넘쳐나는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며 끊임없는 토론과 합의의 연속임을 알게 해주고, 그 과정의 지난함을 보여준다. 옛 양조공장을 개조한 쿨투어 브라우어라이(Kultur Brauerei) 같은 유명한 공간 역시 문화와 관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며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예술과 상업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다.

생태

베를린에는 기존의 티어가르텐(Tiergarten·독일 베를린 중앙의 큰 공원)이나 템펠 공항을 개조한 공원 같은 녹지 공간 이외에 이른바 생태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간이 도시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립되고 배타적인 커뮤니티가 아닌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교류하며 훌륭한 어반 셸터(urban shelter)로 기능하고 있다. 도시농업, 유기농, 친환경 생활, 재생에너지, 자급자족, 대안예술, 생태건축, 목공, 플리마켓, 협동조합, 물물교환, 공유경제, 축제와 워크숍 등은 이들의 테마이자 콘텐츠다. 열악한 형편에서 이런 것들은 이벤트나 레토릭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적 생존 방안이었을 것이다.

공동체

그런 면에서 ‘우파 파브릭(ufa fabrik)’은 이런 생태 공동체의 성지다. 옛 베를린 영화촬영소 부지를 활용해 조성된 이곳은 다양한 문화·예술·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생태마을이자 복합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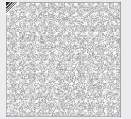


3



4

3 25년 만에 만난 필자(왼쪽)와 우파 파브릭의 대표 만프레드(오른쪽)
4 우파 파브릭 입구
5 코워킹스페이스 내부



이다. 나는 이곳에서 1996년에 김덕수 사물놀이패, 안숙선, 전통무예인 육태안, 재즈밴드 트라이빔, 한지공예가 김경 등을 모시고 <베를린난장>이라는 한국 문화 축제를 기획한 바 있다. 당시 이를 지원한 삼성SDS는 단순 후원을 넘어 당시 막 도입된 인터넷 시스템으로 행사 전체를 아카이빙하고 중계하는 역할을 했다. 당시 함께 기획했던 우파 파브릭의 대표 만프레드를 구내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것은 대반전이었다. 팔팔한 청년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중년과 환갑이 돼 흰머리를 쓸어 올리며 세월의 무상함에 웃는다.

음식

음식과 관련 돼 늘 평가절하되는 나라가 영국·독일이 아닌가 싶다.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요리에 비해 독일은 맥주와 소시지 그리고 투박한 몇몇의 육류 요리로만 이야기된다. 그러나 창의적인 사람이 물리는 곳은 음식 문화도 함께 변하기 마련이다. 다양한 국적의 이주자는 자국의 음식을 소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독창적인 퓨전 음식이나 컬래버레이션이 돋보이는 메뉴가 등장하게 된다. 가히 베를린은 이제 음식에 관해서는 코즈모폴리턴적인 취향을 충분히 충족시키고도 남는 도시가 됐다.

한식

베를린의 음식 문화 변화의 물결에 부응하는 우리 한식의 약진도 인상적이다. 과거 외국의 한식당이라 하면 ‘서울’ ‘남대문’ ‘아리랑’ 같은 상호로 불리기, 비빔밥 등의 메뉴를 내세우고 운영했으나, 이제 한식당도 문화적 감수성으로 무장한 청년창업가에 의해 진화하고 있다. 이곳 베를린에서 만난 ‘앵그리치킨’ ‘김치공주(Kimchi Princess)’ ‘서울주방(SEOULKITCHEN)’ ‘분식집 파치피코(Pacifico)’ ‘고추가루(Kochu Karu)’ 등은 디자인과 마케팅에서 뛰어나다. 알고 보니 건축가가 주인인 앵그리치킨 외에도 음악과 디자인 등 예술을 전공한 주인들의 탁월한 안목으로 한국 식당은 당당히 현지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다.



5

노마드

베를린은 디지털 노마드와 자유로운 아티스트를 위한 최적의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코워킹(Co-working) 스페이스는 거의 코피잉(Co-feeing) 스페이스라 할 정도로 일과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저렴하지만 쾌적하고 편안한 숙소가 준비하다. 사람들은 어디서나 일상성을 유지하고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며, 지역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다. 앱과 웹을 활용해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언어의 한계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글로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베를린은 이제 보수적·전통적 역사문화 도시에서 벗어나 실험적인 예술과 창조적인 교육, 첨단 과학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한 창업 및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글로벌한 감각을 갖춘 창의적인 사람들이 물려들어 창조적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다. 베를린 인구의 상당수가 문화예술계 종사자이고, 이들이 베를린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에 베를린시는 외국인 예술가에게도 무상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등 창작 환경을 제공한다. 매력 있는 도시는 그만큼 투자가 있기에 가능하다. 그 투자의 핵심은 사람이다.

글·사진 이선철_서울문화재단 이사,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책’의 문을 열고 사진을 만나다

복합문화공간 ‘더 레퍼런스’

‘레퍼런스(reference)’는 참고·참고 문헌이란 뜻의 단어다. 이 단어가 공간을 지칭한다면, 그 공간은 참고 문헌이 모여 있는 서재나 작은 도서관 정도가 되는 것일까. 사진예술과 책을 접목한 공간 ‘더 레퍼런스’는 다채로운 결을 지닌 곳이다. 지하1층 전시 공간과 2층 서점을 오가며 예술의 아이디어와 책의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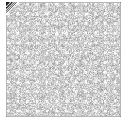
‘전시가 있는 서점’의 2년

2018년 3월 개관해 아시아의 사진·미디어 작품과 작가 그리고 관련 책을 꾸준히 선보여온 더 레퍼런스는, 서촌의 공기와 구석구석 숨은 갤러리 등 보물창고를 즐기는 이들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다. 건물 1층 입구에 소개된 전시 내용에 호기심이 동한 이들은 지하 1층으로 끌리듯 향할 것이다. 넓진 않지만 천장이 높고 정사각을 슬쩍 벗어난 공간은 사진이나 미디어 설치 전시를 규모 있게 하기 좋다. 이곳에서 아시아 사진작가들의 작품 및 작품집을 함께 전시하며 한 권의 사진집이 만들어지기까지 제작 과정을 소개하기도 하고(전시 <표현으로서의 사진집에 관하여>, 2018), 2019년 가을에는 미국의 사진 매거진 <라이프(LIFE)>의 유명 작품 90여 점과 <라이프>지를 함께 선보이는 전시로 큰 호응을 얻었다. 지하에서 전시를 감상한 이들은 2층으로 많이들 걸음을 옮겼을 것이다. 작가에게 생긴 궁금증에 힌트가 될 만한 책을 서점에서 찾아보기 위해.

“더 레퍼런스를 ‘전시가 있는 서점’이라고 소개해 왔어요. 책을 보다가 전시



더 레퍼런스의 2층 서점 내부



2019년 4~5월에 진행한 두 번째 〈아시아아트북 라이브러리〉 전시 전경

를 볼 수도 있고, 전시를 본 분들이 책으로도 관심을 이어가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죠. 책을 매개로 시각예술의 이해를 넓히고,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더 레퍼런스의 김정은 대표는 사진 및 시각예술 관련 전문 도서를 만드는 출판사 이안박스(IANN)의 운영을 겸하고 있다. 아트북과 사진 전문 매거진 《IANN》을 발행하면서 막상 예술 분야 전문 도서를 취급하는 서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책을 선보일 공간을 직접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사진집이 대개 작품을 설명 없이 시각적으로만 전달하기에 이를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서점에 더해 전시와 아티스트 토크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것이다.

개관전 〈아시아 아트북 라이브러리〉는 더 레퍼런스가 보여주고자 하는 콘텐츠(아트북)의 방향(아시아·도시)과 보여주는 ‘방법’을 잘 드러낸 전시였다. 아시아 작가들의 다양한 아트북을 전시하며 판매를 겸했는데, 한국의 서울 역시 아트북의 수요가 분명 존재하지만 플랫폼이 마땅하지 않았던 터라, 개관전은 화제성과 책 판매 모두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이후 2년간 더 레퍼런스는 시각예술 작품과 아트북을 소개하는 전시 및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왔다. 전시와 연계한 아티스트 토크 프로그램은 작가에게 직접 작품 설명을 듣는 자리로, 사진과 ‘사진집’ 작업에 대해 관객·독자와 입체적인 이

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것을 ‘꾸준히’ 시도하고 유지하는 것이 이 공간의 1차 미션이었다.

‘책’에 방점 찍고 확장하기

2020년 3월, 더 레퍼런스는 개관 2주년을 맞이했다. 해마다 선보인 〈아시아 아트북 라이브러리〉 기획전을 시작할 시기, 갑작스레 닥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더 레퍼런스 역시 전시 및 프로그램을 잠정 연기해야 했다(2층 서점은 정상 운영). 아시아 작가들과 교류를 활발히 해온 터라 이 변수가 달가울 리 없지만, 김정은 대표는 멈춤의 시간을 내부 재정비의 기회로 삼고 있다.

“서점의 기능을 더 강화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저희는 책을 만들고 책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지금까지 시각예술을 알리는 매개가 전시였다면 이제는 ‘책’을 더 비중 있게 가져갈 생각이예요. 독자들과 전문성 있는 콘텐츠가 어렵지만은 않다는 걸 저희가 알려드려야 하는데, 북 큐레이션으로 이를 전달하려면 내부에서 스테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공간의 강점과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찾고자 합니다.”

일단 가깝게는 5월 말부터 사진과 책이 다채롭게 결합된 강연 프로그램을 재개한다. 한 회당 한 사진작가의 대표 사진집과 문학·인문서 등을 매칭해 사진예술에 대한 사고를 확장하는 〈김소희의 Book Curation-사진, 책을 읽다〉가 그것이다. 2021년 2월까지 예정된 이 프로그램은 긴 호흡으로 책과 사진을 두루 만날 기회다. 더불어 더 레퍼런스는 올해 북 큐레이션 작업으로 외연을 넓히게 됐다. 무지호텔(베이징·긴자)의 기획·디자인을 맡아 유명한 일본의 건축사무소 UDS에서 오는 여름 ‘호텔 안티룸 서울점(Hotel Anteroom Seoul)’을 오픈하는데, 이곳 전시 공간과 서가의 큐레이션 자문 및 운영을 맡은 것. 더 레퍼런스에서 기획한 서재가 다른 공간에 심어지는 셈이다. 공간의 특성과 장점에 맞춰 서가를 기획하고 그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책의 매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예술을 전하는 작업, 다른 공간에 개성 있는 서재로 투입하는 일은 더 레퍼런스가 찾은 서점의 미래라고 할 수 있겠다.

가장 전통적인 매체의 힘을 믿어온 공간은 가장 역동적인 방식으로 독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시각예술 이론서와 아시아 사진작가들의 작품집, 이안박스의 출판물이 사이좋게 이웃한 효자동 더 레퍼런스의 작은 서가에 올હે는 부쩍 많은 책과 이야기가 쌓일 것 같다.

글 이아림_객원기자 사진 제공 더 레퍼런스

몸과 마음의 환기를 위한 국내 초연작들

모노극 <그라운드드>와 2인극 <령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봄기운은 완연하지만, 코로나19로 관객이 공연장에 모이기 힘든 3·4월의 공연계는 봄 같지 않았다. 그런데 4월 중순 현재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면서 사회 곳곳에서 기지개를 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도 방심은 금물. 생활 방역 체계에서 공연계는 물리적 공간의 '안전한 관람'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관객들의 심리적 공간에 자리한 위기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작품 고르기에 더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모노극 <그라운드드(GROUNDED)>와 2인극 <령스>는 알맞은 답이다.

*이번 호에 실린 공연·행사 등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드(GROUNDED)>와 <령스> 모두 이번이 국내 초연으로 정서와 생각을 환기시킨다. 거기에 스타 배우들의 새로운 도전, 사회의 현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지점도 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극장에서 하는 모노극(<그라운드드>)과 2인극(<령스>)이니 관객이 몰릴 것에 대한 부담도 덜하다. 이제야 봄 같을 5월, 공연계가 고개를 내미는 데 제격일 작품들이다.

톱 뮤지컬 배우의 도전은 계속된다

<그라운드드(GROUNDED)> | 우란문화재단 우란2경

<그라운드드>는 우란문화재단과 프로젝트그룹 일다가 5월 14~24일 우란문화재단 우란2경에서 한국 초연한다. 미국 극작가 조지 브랜트(George

Brant)의 대표작이다. 에이스급 전투기 조종사가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라스베이거스의 크리치 공군기지에서 군용 무인정찰기(드론)를 조종하는 임무를 맡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2013년 초연 이후 세계 19개국, 12개 언어, 140개 이상의 프로덕션에서 공연됐다. 초연한 해에 <가디언> <런던 이브닝 스탠더드> '올해의 연극 톱 10'에 선정됐다. 우란문화재단과 일다가 2019년 국내 초연해 호평받은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에 이어 선보이는 두 번째 모노극으로 마니아들의 관심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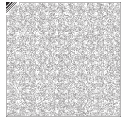
<그라운드드>는 갑상선암에서 회복한 뮤지컬 배우 차지연이 1년 1개월 만에 무대로 돌아오는 작품이라 눈길을 끈다. 차지연은 <호프: 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서편제> 등에 출연한 뮤지컬계 톱 배우다.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 출연을 앞두고 공연 직전이던 2019년 4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활동을 쉬었다. 지난 1월 갈라쇼에 출연해 복귀를 타진했고, 지난 2월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뮤지컬 콘서트에서 국내 여성 뮤지컬 배우로는 처음으로 유다 역을 맡아 건재를 과시했다. 4월 현재 방송 중인 뮤지컬 앙상블의 경연 프로그램인 tvN <더블 캐스팅>에서 멘토를 맡고 있다. 모노극은 하나의 도전이지만 차지연은 이미 평범하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 뮤지컬 <더 데빌>을 통해 최근 공연계에 유행한 '젠더 프리'를 실현했고, <광화문연가>에서는 정성화와 함께 월화 역을 맡아 '혼성 캐스팅'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10년 가까이 전 세계에서 공연되고 있는 던컨 맥밀런의 대표작

<령스> |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2관

<령스>는 대학로의 확실한 공연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연극열전'의 여덟 번째 시리즈 '연극열전8'의 첫 번째 작품이다. 5월 9일부터 7월 5일까지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2관에서 국내 초연한다. <령스>는 선뜻 꺼내기 불편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다소 낯설지만 불편하지 않은 방법으로 꾸준히 소개하고 있는 영국 작가 던컨 맥밀런(Duncan Macmillan)의 대표작이다. 이번 작품에서는 '지구환경'에 주목하며 두 남녀가 대화하는 2인극으로 진행된다. 2011년 워싱턴 초연 이후 미국·영국·캐나다·스위스·벨기에·슬로베니아·필리핀·홍콩·아일랜드 등에서 공연됐다.

<령스>는 그룹 '신화' 멤버 김동완이 연극에 데뷔하는 작품으로 주목받는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왔지만, 상대에 대한 이해와 위로에 서툴러 긴 시간을 돌아 서로를 인정하게 되는 남자를 연기한다. 김동완은 1998년 신화 멤버로 데뷔했다. 2011년 <헤드워>을 시작으로 <벽을 뚫는 남자> <에



연극 <그라운드드>와 <렁스> 포스터

드거 앨런 포) <시라노> <젠틀맨스 가이드> 등 뮤지컬로만 공연 관객을 만나왔다. 이번 <렁스>를 통해 연극 무대에도 반경을 넓힌다. <렁스>에는 김동완 외에 이동하·성두섭·이진희·곽선영이 출연한다.

현 사회에 대한 고민

<그라운드드>와 <렁스> 모두 현 사회의 이면을 토포한다. <그라운드드>의 주인공은 스크린을 통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장을 감시하며 적들을 공격하는 한편 퇴근 후에는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괴리에 점차 혼란을 느끼게 된다. 공격과 방어 수단으로 전쟁의 새로운 무기가 된 드론의 양면성에 착안, 하나의 존재가 가진 경계와 양면성을 다룬 내용으로 지

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답을 고민해야 할 질문을 던진다. <렁스>는 매사 진지하고 사려 깊게 고민하고, 적어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커플이 평생에 걸쳐 각자의 감정에 대해,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세계, 나아가 우리가 사는 지구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간다.

“아이 한 명의 탄소 발자국이 얼마인지 알아? 이산화탄소가 자그마치 1만 톤이야. 그건 에펠탑의 무게라고! 나는 에펠탑을 낳는 거야.” 현대적인 사랑 이야기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지만 불확실성이 삶의 방식이 된 지금 세대의 진짜 목소리이기도 하다.

글 이재훈, <뉴스시스> 기자 사진 제공 우람문화재단&프로젝트그룹 일다, 연극열전

미술관에 가지 않아도, 혼자 가도 좋은

전시 <미술관에 흐: 한국 근현대 서예전>과
<박영숙: 그림자의 눈물>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국 미술관과 갤러리가 휴관 하면서 문화예술계의 암흑기가 계속됐다. 하지만 힘들 때 대중의 마음을 위로하는 게 문화예술의 힘이기도 하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아라리오갤러리는 각각 온라인 전시와 프라이빗 전시 관람을 코로나19 시대 대안으로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호에 실린 공연·행사 등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시 <미술관에 흐: 한국 근현대 서예전>

국립현대미술관은 개관 51년 만에 여는 첫 서예 전시 <미술관에 흐: 한국 근현대 서예전>과 관련, 배원정 학예연구사의 해설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www.youtube.com/MMCAKorea)에 공개해 조회수 4만 2,000(4월 13일 기준)을 넘겼다. 아라리오갤러리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페미니스트 사진작가 박영숙 개인전을 1인 혹은 1팀 관람으로 제한해 눈길을 끌었다.

한눈에 보는 한국 근현대 서예의 역사

<미술관에 흐: 한국 근현대 서예전>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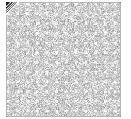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점정 휴관 중. 전시 관람은 유튜브 채널에서 가능

덕수궁관에 작품 300여 점을 펼친 국립현대미술관 서예 전시에서는 사람만 한 대붓이 시선을 붙잡는다. 구한말 영친왕(1897~1970)의 스승이었던 해강 김규진(1864~1933)이 <금강산 구룡폭>을 그리고, 미륵불이라는 글씨를 쓸 때 사용한 붓이다. 본인 키보다 큰 붓으로 퍼포먼스를 펼쳤을 정도로 대가의 역량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은 위축됐지만 서예가의 위상은 1980년대만 해도 대단했다. 소암 현중화(1907~1997)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한복을 입고 성화 봉송을 했을 정도로 사회적 존경을 받았다. 이번 전시장에는 그가 술에 취해 서귀포 음식점 국일관 벽에 쓴 <취시선(醉是僊·취하면 신선이 된다)>이 걸려 있다. 재기 발랄하고 현대적 감각이 깃든 작품으로 서예를 넘어 추상화 같다. 글자 속에 한 마리 학이 춤을 추는 듯 가늘고 긴 것 같으면서도 그 강인한 힘이 마치 전통 무예 태권을 보는 듯하다.

소암을 비롯해 한국 근현대 서예가 1세대 12명의 작품은 이번 전시의 중심이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등 격동기에도 한 획을 그으면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확립한 인물들이다.

소전 손재형(1903~1981)은 일제강점기에 쓰인 용어 서도(書道) 대신 서예(書藝)를 주창해 널리 쓰이게 했다. 한글과 한문 서예에 두루 능했고, 다양한 조형 실험을 통해 독창적인 '소전체'를 탄생시킨다. 특히 추사의 걸작 <세한도(歲寒圖)>를 소장했던 후지쓰카 지카시(1879~1948) 경성제국대학 교수를 찾아가 여러 번 부탁한 끝에 마침내 작품을 인도받아 귀국한 일화로도 유명하다. 이번 전시장에는 1956년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의 명량대첩을 기리고자 전남 진도군 고군면 나루터 벽파진에 세운 비석에 소전이 쓴 <이충무공 벽파진 전첩비(李忠武公 碧波津 戰捷碑)> 탁본이 걸려 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일중 김충현(1921~2006)은 한글고체와 한글 흘림·전서·예서·해서·행서 등 6종 서체를 한 공간에 조화시켰다. 그의 동생인 여초 김응현(1927~2007)이 한글고체와 예서·행서를 혼성한 <세종 어제훈민정음(世宗御製訓民正音)>도 전시장에 걸려 있다. 붓끝의 중심이 한가운데로 모여 선질의 밀도가 높고 마치 금석처럼 탄탄하게 느껴진다.

강암 송성용(1913~1999)은 일제의 강압에도 단발령과 창씨개명을 거부한 부친의 뜻을 이어 평생 상투를 틀고 한복을 입고 다녔다. 맑고 우직한 대나무 줄기가 뻗어 있는 그의 <석죽도(石竹圖)>에는 선비의 강인한 기상이 서려 있다.

제주의 버려진 땅에서 발견한 여성의 생명력

<박영숙: 그림자의 눈물> |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소격동 아라리오갤러리에 들어서면 음산한 숲속에 립스틱과 분첩, 인형 등이 놓여 있는 기묘한 풍경이 담긴 사진들과 만나게 된다. 박영숙 작가는 제주도 꽃자왈에서 찍은 신작 <그림자의 눈물> 연작 18점을 “마녀들이 살았을 것 같은 흔적”이라고 표현했다. 꽃자왈은 ‘가시덤불 숲’의 제주 방언으로 척박해서 버려진 땅이다.

2016년 이곳을 처음 찾은 작가는 “하멜(네덜란드 선원)의 배가 표류하다가 제주도로 온 것처럼 500년 전 유럽의 화염에서 빠져나온 여성이 제주도에 버려져 마녀답게 살아내는 상상을 시각화했다. 숲과 립스틱 등 오브제가 서로를 끌어안아 줘서 기가 막힌 감동을 전해 줬다. 상상보다 아름다워서 슬프더라”고 말했다.

짧은 머리카락을 보라색으로 염색한 그는 기괴한 숲에 자신의 이야기를 심었다. 결혼식 때 입은 웨딩드레스와 아버지로부터 선물받은 첫 카메라, 아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부모님 사진과 편지 등을 놓고 사진을 찍었다. 지난 3년간 일요일이면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가서 월요일 아침에 소품들을 놓는 ‘의식’을 치르고 작업을 했다.

“내 안의 마녀성을 치솟아 오르게 하는 것 같은 작품이다. 굉장한 지혜와 슬기로움, 창조, 생산성을 여성성이라고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여성성을 상징하는 마녀의 흔적을 담았다. 의지 있는 행동을 실행하는 여성들을 감내하기 힘든 사회가 문제다.”

숲에 놓인 실과 바늘에서 척박한 땅을 일구는 억척스러운 모성이 보이기도 한다. 칙칙한 숲을 환하게 만드는 스카프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성으로 다가온다. 처음에는 ‘불협화음’처럼 느껴지는 오브제들이 작가의 설명을



<박영숙: 그림자의 눈물> 전시장 전경(위)과 <그림자의 눈물 16>(아래)

들자 상징성을 지니게 됐다.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프랑스 출신 조각가 루이즈 부르주아(1911~2010), 뉴욕에서 보모로 살면서 셀피(selfie)를 찍던 사진작가 비비언 마이어(1926~2009) 등 여성 예술가의 사진도 꽃자왈에 등장한다. 페미니스트 작가로서 갖는 정체성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동안 도발적인 인물 사진 연작 <미친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여성의 몸과 자아에 대한 사회적 억압, 부조리, 성적 권력 구조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런데 이번 신작에서는 사람 대신 소품을 등장시켰다.

2006년 한국 최초 사진 전문 갤러리인 트렁크갤러리를 개관해 2019년까지 운영한 작가는 “교통사고 후 왼쪽 마비가 와서 아직 어지럽지만 잘 적응하고 있다. 이게 정상이라고 긍정하고 있는 내가 참 좋다”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번 전시는 6월 6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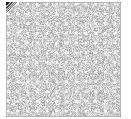
글 전지현_《매일경제》기자 사진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아라리오갤러리

상상력으로 빛은 현실 세계

책 《고독 깊은 곳》과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

코로나19 탓에 심란하기 그지없는 요즘이다. 오죽하면 “현실이 더 소설 같다”는 말이 나올까. 이럴 때 현실에서 한발 떨어져 SF(공상과학) 소설을 읽으면서 머리를 식혀보는 것은 어떨까. 번뜩이는 상상력이 돋보이는 SF 소설집 2권을 골라봤다. 중국 작가 하오징팡의 《고독 깊은 곳》, 한국 작가 김동식의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이다.





기발한 상상력에 목직한 주제 담아

《고독 깊은 곳》 | 하오징팡 지음, 강초아 옮김 | 글항아리

《고독 깊은 곳》은 중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SF작가 하오징팡이 2010~2016년 발표한 중·단편소설 10편을 묶은 소설집이다. 특히 SF소설의 최고상으로 꼽는 휴고상을 받은 중편소설 〈접는 도시〉가 실려 있다. ‘접는 도시’는 인구가 불어난 미래의 베이징을 가리킨다. 모두 3개의 공간으로 돼 있는데, 한 공간을 접어 큐브 모양으로 만든 뒤 지반을 뒤집으면 다른 공간이 나타난다. 한쪽이 활동하면 나머지 2곳의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수면 가스를 마시고 강제 취침한다. 제1공간은 24시간 활동하고 24시간 휴면하는 데 반해, 제2공간 사람들은 16시간, 제3공간 사람들은 8시간을 쓴다. 소설은 가장 가난한 제3공간에서 쓰레기 처리 일을 하는 라오다오가 딸의 유아원 등록비를 벌기 위해 제2공간과 제1공간을 넘나들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도시를 접어 사용한다는 발상도 놀랍지만, 시간까지 다르게 나누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설정은 서늘하기까지 하다. 짐작하겠지만, 빈부 격차가 뚜렷한 3개의 공간은 사회 속 계급을 의미한다. 미래의 베이징을 묘사했지만, 읽다 보면 현실 세계를 은유(隱喻)함을 알 수 있다. 같은 도시를 공유해 사용하지만, 풍족하게 살아가는 제1·2공간에 비해 제3공간 사람들의 삶은 각박하기만 하다. 작가는 라오다오의 분투로 하층민의 내물린 삶을 그린다. 그리고 라오다오와 그가 만난 제1·2공간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 계급 사회에서 인간성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는다.

복제인간을 통해 지식과 정보의 전수를 묘사한 〈마지막 남은 용감한 사람〉도 주목할 만하다. 체제를 전복할 정도로 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스제이47이 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망치다 창고지기인 파노32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복제인간을 책으로 빚대어 표현한 부분이 비슷한 소재를 다룬 여타 소설보다 참신하다. 파노의 후손인 파노34가 파노35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마지막 장면 묘사가 압권이다.

가상의 소설 속 세계가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예리하게 포착해 상상력으로 빚은 공간 속에 펼쳐놓은 작가의 탁월한 역량 덕분일 것이다. 저자의 신작 단편집 《인간의 피안》도 최근 출간됐다. 전작을 읽어본 뒤, 한층 깊어진 작품을 만나보길 추천한다.

가벼운 이야기에 인간의 민낯 드러내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 | 김동식 지음 | 요다

김동식 작가의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는 가볍지만 작가 특유의 매력 이 돋보이는 23편의 단편소설을 담았다.

인간의 탐욕을 까발리는 이야기가 우선 눈에 들어온다. 전자회사 회장 두석규가 4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고양이 조각상을 발견하고서 과거의 자신에게 돌아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내용의 〈4년 전으로〉가 대표적이다. 60세 생일에 64세의 자신을 만난 그는 차례대로 56세, 52세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신의 목숨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조인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퇴색한다. 결국, 석규는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

돈의 사연을 측정해 돈으로 다시 돌려주는 〈돈을 매입하는 기계〉는 욕심 때문에 깨져버린 우정을 그린다. 이 기계를 발견한 용철과 민우는 점점 큰돈을 만지지만, 탐욕은 점점 커진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결과뿐이다.

하오징팡이 무게감 실린 ‘혹’을 날리는 작가라면 김동식은 ‘쩍’을 날리는 작가다. 그러나 그 찻이 아주 매섭다. 몇 쪽 안되는 소설 속 반전이 독자의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친다.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고 찾아온 외계인에게서 빛 기둥을 받고 좋아하는 지구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 〈행성 인터리어〉가 그렇다. 빛 기둥의 정체를 알게 되면 독자들은 아마 무릎을 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소설 대부분이 인간의 본성을 예리하게 드러낸다. 비현실적인 설정임을 알고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믿게 만드는 저자는 그야말로 탁월한 이야기꾼이라 하겠다.

성수동 주물공장에서 일하던 김동식 작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유명해졌다. 2016년부터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만든 기이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무려 500여 편에 달한다.

이번 책은 그의 8번째 단편소설집이다. 소재 고갈 우려를 불식하듯, 이번 소설집에서도 저자는 폭발적인 상상력을 선보인다. 첫 번째 단편집 《희색 인간》을 필두로 한 저자의 지난 소설집에서도 번뜩이는 상상력을 마주할 권한다.

글 김기중_《서울신문》기자 사진 제공 글항아리, 요다

시장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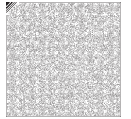


제기동 경동시장

내가 '머느리'였을 때, 경동시장에 갈 일이 많았다. 오래도록 그렇게 다니다 보니 지하의 수산물 시장에는 단골가게까지 생겼다. '제수(祭需)'를 산다며 생선을 좀 까다롭게 고르는 여자로 밍보였을지 모른다. 시맥 쪽의 어떤 분께서 내게 제수의 의미, 그중에서도 제상에 반드시 올려야 할 생선에 대해 말해 준 적이 있다. 조상님이 밀어주시는 민어, 도움을 주시는 도미, 그리고 조상님인 조기... 그 말을 들으면서 허술한 웃음을 웃지 않으려고 애썼던 기억이 난다. 그분은 내가 경동시장에서 생선을 사 온다는 말을 듣고 "그 정성..." 하면서 대견해하셨다. 사실 이렇게나마 본업을 잊고 경동시장에 갈 기회가 생긴 걸 좋아했다. 마치 소풍 가는 기분이었다. 버스를 한번만 타도 갈 수 있는 장점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경동시장은 나만 아는, (아니 누구나 그럴지 모르지만) '향기'가 있었다.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코로 스며드는 한약재 냄새는 언제나 메마른 내 마음을 축축하게 적셔주었다. 여러 약재가 저마다 뿜어내는 개성적인 향기, 그중에서도 당귀! 밭에서 갓 뽑아 온 당귀의 향기는 내게 추억의 한 시절을 품안에 가득 안겨주곤 했다.

어릴 때 무슨 일만 생기면 남설악 골짜기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곳으로 도망갔더랬다. 학교라는 곳에 정나미가 떨어져 중학교에 진학하고 싶지 않을 때, 고등학교에 가기 싫을 때 등등. 그리고 엄마와 아버지가 있는 집이 싫어졌을 때. 북한 땅에서 남한 땅이 된, 그래서 수복지구라는 이름이 앞에 붙은 양양의 이해 불가한 분위기에 질리면 나는 그곳으로 도망갔다. 걸어서 한나절 걸리는 곳. 경사가 몹시 급해서 '빨딱고개'라는 이름이 붙은 고개를 올라가 평지에 올라서면 문득, 다른 세상으로 온, 그런 탈출의 해방감을 맛보곤 했다.

더는 깨뜨릴 수 없는 바위들이 놓인 개울을 건너 천천히 높아지는 골짜기를 한참이나 올라가면 무언가 별판이 나타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까마귀가 노래하기 시작했다. 외지에서 낯선 사람이 왔다고 온 동네에 알리는 것이었다. 사람과 밭과 나무와 풀과 벌레들, 새



들 모두 들으라고 까악까악 노래했다. 높은 나무 위에서 그렇게 노래하면 하늘에 닿고 땅에 퍼졌다. 이런 시절로부터 먼 미래에 해발 2,700미터로 시작되는 평지에서 사는 중국 운남성 소수 민족의 땅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이와 흡사한 발성을 들었다. 그곳의 사람들이 까마귀처럼 노래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들리는 소리.

어쨌든 나는 그곳에서 당귀의 존재를 알았다. 할아버지가 산에 다녀와 망태기를 열면 그곳에서 당귀 냄새가 순수와 청결과 무구함의 향기를 뿜었다. 물론 할아버지의 망태기엔 당귀만 있지 않았다. 산에서 나는 약재들이, 지금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다양한 약재와 갖가지 버섯이 들어 있었다.

사실 당귀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도 있었다. 동남향으로 난 화장실에 앉아서 일을 볼 때, 겨울이 아니라면 단을 필요도 없는 문짝은 늘 열려 있었다. 나는 우두커니 앉아서 몸이 하는 일은 몸에게 맡겨두고 눈앞에서 살랑거리는 푸른 당귀 잎을 바라보았다. 나비가 날고 벌이 날고 또 다른 벌레도 많았다. 그런 것들 사이에서 흔들리는 푸른 당귀 잎. 겨울이면 말린 당귀 뿌리를 끓여 고뿔을 낮게 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숯불에 달여서 먹여주곤 했다. 가난해서 입 하나 던다고 할아버지 집으로 보내진 열한 살의 민며느리, 할머니. 시어머니 될 분젠 매를 맞으며 살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계산속이라곤 티끌만큼도 없던 할머니의 천진무구함! 슬프도록 그리운 모습이다.

당귀 향기는 경동시장이 내게 주는 선물이며 그 향기가 불러일으키는 그리움은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기도 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조상님'들의 제수를 장만하면서 정작 그리운 할아버지 할머니의 제사엔 못 간 나...

유년의 추억을 속절없이 불러온 당귀와 온갖 약재의 향기를 맡고 바라보다가 신호등을 따라 길을 건너면 아, 경동시장이다. 화려하고 안정적이고 부유함마저 느끼게 하는 커다란 인삼가게들. 그 앞에 올망졸망 자리한, 눈치 보이는 자루들을 놓고 파는 상인들. 무슨 단속 같은 것이 뜨면 순식간에 자루나 가방을 들고 뿔 준비가 돼 있어 보였다. 그리고 이 골목 저 골목 없는 것이 없는 시장. 도매로 물건을 파는 곳에 가서 나물이나 양념거리를 사서 길가에 앉아 소매로 파는 아주머니 할머니들. 나는 딱히 살 것이 없어도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만약의 경우'를 상상하곤 했다. 소설을 쓸 수 없게 된다면, 저기 저 가게에 가서 마늘을 까게 해달라고, 저 음식점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게 해달라고, 음식을 배달하겠다고, 채소를 다듬겠다고 말해 봐야지, 상상하면서 기웃거릴 때도 있었다. 못할 일은 없었다. 나이와 체력, 그리고 의지가 문제였다.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해서 먹고사는 일이니.

나는 때때로 몸이나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불안정할 때, 소설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릴 때, 경동시장으로 갔다. 사시사철 그곳에 가기 때문에, 가서도 물건만 사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관찰'했으므로 어느 골목, 어느 길가에 누가 앉아 무엇을 파는지 대충 알았다. 봄과 여름엔 찾길까 비좁은 공간에 나물·과일·채소·밤·대추와 생선을 파는 할머니들이 많았다. 그분들 중 어느 분은 한겨울에도 그곳에 나와 뽕뽕 얼어 비틀어진 갈치·동태·고등어를 팔았다. 한번은 얼마나 버시느냐고 오래도록 망설이다가 여쭙보았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아직 집안일을 하실 수 있다면 가사도우미 수입이 훨씬 좋을 것 같았다. 돌아와서도 내내 왜 할머니가 한겨울에도 언 생선을 팔까, 상상해 봤다. 다른 일을 찾을 수 없어서? 배운 도둑질이라서? 마치 나처럼. 그러다가 불현듯 깨달음 같은 것을 얻었다. 할머니도 그 일이 주는 기쁨, 보람을 터득하신 건 아닐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쩌다 단골도 생기고, 같은 일을 하는 동무들과 정도 들고, 비록 흥정이긴 하지만 난생처음 보는 사람과 말도 트고, 별별 사람들 다 경험하거나 구경하게 되고...

나처럼. 아무도 내게 소설을 쓰라고 하지 않고, 써도 생활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 이 일. 그런데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사는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없는 이 기분. 소설 속에 빠져서 이야기와 등장인물에 황홀한 사랑마저 느끼게 되는, 마치 농경사회의 농부 같은 마음을 할머니도 가지셨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한다.

시장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

글·사진 이경자_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소설가

왜 만들고 왜 먹냐건, 웃지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가 된 쿠키와 먹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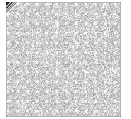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SNS 타임라인에 활발하게 등장한 ‘달고나 커피’.
 만들기 힘들고 맛은 보장 못 한다는 음료에 많은 이들이 도전해 인증샷(과 푸념)을 공유했다.
 이 밖에도 SNS에는 다양(하고 황당)한 노동집약적 레시피들이 떠돌아다니며 우리를 유혹한다.
 ‘대체 이걸 왜 만들지?!’ 궁금해서 만들어보게 되는 게 레시피의 핵심.
 맛보다 경험이 더 중요한 이 괴식들은 음식이라기보다 가성비 높은 엔터테인먼트에 가깝다.



달고나 커피... 이걸 왜 만드는 걸까요

400번만 저으면 된다더니, 커피와 설탕을 섞은 검은 물은 도무지 꾸덕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손목과 팔뚝이 저리지만, 지금에서야 포기할 수도 없다. 처음엔 맛이 궁금해서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와 커피의 전쟁, 오기로라도 끝까지 해야만 한다. 400번이 아니라 4,000번을 휘저었지만 액체 커피는 도무지 고체가 될 기미가 보이

지 않는다. 아, 이제 포기포기. 결국 나는 대망의 거품기를 꺼내 들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으로 평일에는 재택근무, 주말에도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집에서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한 각종 놀이가 온라인에서 유행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달고나 커피’다. 베트남 길거리 커피에서 비롯한 달고나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 가루와 설탕을 1대 1 비율로 섞고 소량의 물을 부은 후 미친 듯이 숟가락으로 휘저어 달고



나 형태의 크림으로 만들어 우유 위에 부어 먹는 커피다. 단지 따뜻한 물에 커피와 설탕만 섞고 휘저었을 뿐인데 단단한 형태가 되는 과정이 신기해서라도 한번은 따라 해보고 싶어지는 레시피다. ‘달고나 커피 만들기’는 그야말로 시간과 노력의 집약체라(거품기를 쓰더라도 3분 이상은 휘저어야 한다) 가성비를 따져본다면 씩 훌륭한 먹거리는 아니다. 힘든 것에 비해 맛도 그저 그런 이 유행은 글로벌로까지 나아가 영국 BBC에 ‘Dalgona coffee’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기도 했는데, 비록 레시피는 베트남에서 유래했어도 해당 커피는 ‘The Korean coffee drink’로 소개됐다. 쿠킹 유투버들 역시 모두 달고나 커피 영상을 제작했는데, 박막례 할머니는 분노의 손가락질을 하시며 이런 명언을 남겼다. “집에 있겠게 별걸 다 해먹네. 한국인들은 일을 안 하든 못 사는 스타일인가봐. 왜 자꾸 일을 만들어. 야니들은 하지 말어라. 커피는 사 먹는 게 최고야.”

SNS에서 유행한 먹거리는 달고나 커피뿐만이 아니다. 달고나 커피가 커피 물을 400번 이상 휘저어 만드는 거라면 1,000번 이상 휘저어서 만드는 계란말이(거품이 많이 날수록 계란의 식감이 포실해진다), 제티(초콜릿 가루)를 1,400번 저어서 만드는 제티떡, 감자를 채 썰어 만드는 감자전 등등... 팔이 빠지도록 노동을 해야만 뿌듯한 완성작을 만날 수 있는 쿠킹 놀이가 유행한다.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노동집약적 음식을 자꾸만 해 먹는 것일까. 어떤 요리가 얼마나 더 고생스러운지 경쟁이라도 하듯이 유투브와 SNS에 너도나도 인증하는 ‘쿠킹 놀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수라간 상궁조차 서바이벌 오디션으로 뽑는 <대장금>의 후예라 뭐든지 피땀 흘려야만 만족하는 민족인가.

맛없으면 어때, 재미있잖아

맛있다는 돈가스 집에 텐트까지 동원해 줄을 서고, 드디어 그 돈가스를 영접했다며 영상과 사진을 찍어 유투브와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좋아요’와 ‘하트’를 받는 일. 식품의 영역에서 유독 구매와 공유가 활발한 이유는 먹거리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이 유별나서이기도 하지만 식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가격대가 낮아 접근하기 쉽기 때문이다. 사람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야말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무조건 대기업의 식품만 맹종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대중은 처음 보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리뷰를 읽어보고 낯선 식품을 구매하는 데 심

리적 문턱이 낮다. 대기업이 아닌 ‘마켓컬리’ 같은 식품 구매 사이트가 몇 년 만에 급성장한 것은 편리한 배송 시스템 덕분이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신기한 해외 식품과 지방의 작은 식품 제조사까지 입점시킨 발빠른 머천다이징 시스템이 한몫했다. 서산 감태 캐러멜과 해초 젤리, 네덜란드 마요네즈와 버터 커피, 표고 버섯 쌀과자와 타로카드 초콜릿 등... 맛이 상상도 안 되는 특이한 식품들을 이곳에서는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샀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고? 각 상품의 가격은 5,000원에서 1만 원 내외다. 재미 삼아 먹어보고 실패해도 크게 손해 보지 않는 가격이다.

편의점마다 마라맛·흑당맛 등 유행하는 소스로 때마다 신메뉴를 내놓고, 제과업체에서 괴상한 신제품을 내놓는 것 역시 식품 판매에서 ‘재미’와 온라인 마케팅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롯데제과에서 출시한 아이스바 ‘쥬크박’(쥬스바+스크류바+수박바)을 보자. 겉 포장만 봐도 누가 만우절 농담으로 합성한 것만 같다. 모양은 스크류바인데 색깔은 쥬스바이고 안에는 수박바가 들어 있다. 이 ‘쥬크박’ 아이스바는 아무리 먹어도 스크류바의 청량함과 쥬스바의 상큼함, 수박바의 단맛을 느낄 수 없다. 게다가 특정 편의점에서 일정 수량만 판매하기 때문에 구하기도 무척 어렵다. 하지만 사람들은 희소성이 높고 재미있을수록 발품까지 팔며 구매한 후 SNS에 인증샷과 해시태그를 남긴다. 물론 인증 글에는 이렇게 써 있다. “한번 사먹어 봤으니 됐어. 다음엔 그냥 수박바 사먹어야지.” 이러한 기획상품은 젊은 세대에게 식품 구매가 단순히 먹거리의 차원이 아니라 공유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내다보고 만든 마케팅 상품이다. 맛이 없어도 괜찮다. 어차피 하나에 1,000원 정도인 이런 상품들은 맛이 없어도 재미있으면 그만이다.

음식에 관해서 한국인들은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사람들이다. 한때의 유행으로 지나갈 거라 여겨졌던 먹방·쿡방이 방송 장르로 자리 잡고, 프랜차이즈 요식업체의 대표인 백종원이 특유의 간편 레시피와 말씀씨로 여러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고정 패널을 맡고 있는 것은 우리 삶에서 식문화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상적으로 매일 음식을 먹되 마라맛·흑당맛 등 유행하는 식품이 있으면 그것을 직접 맛보고 개인 SNS에 인증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우리에게 이제 먹기란 일상이면서 일탈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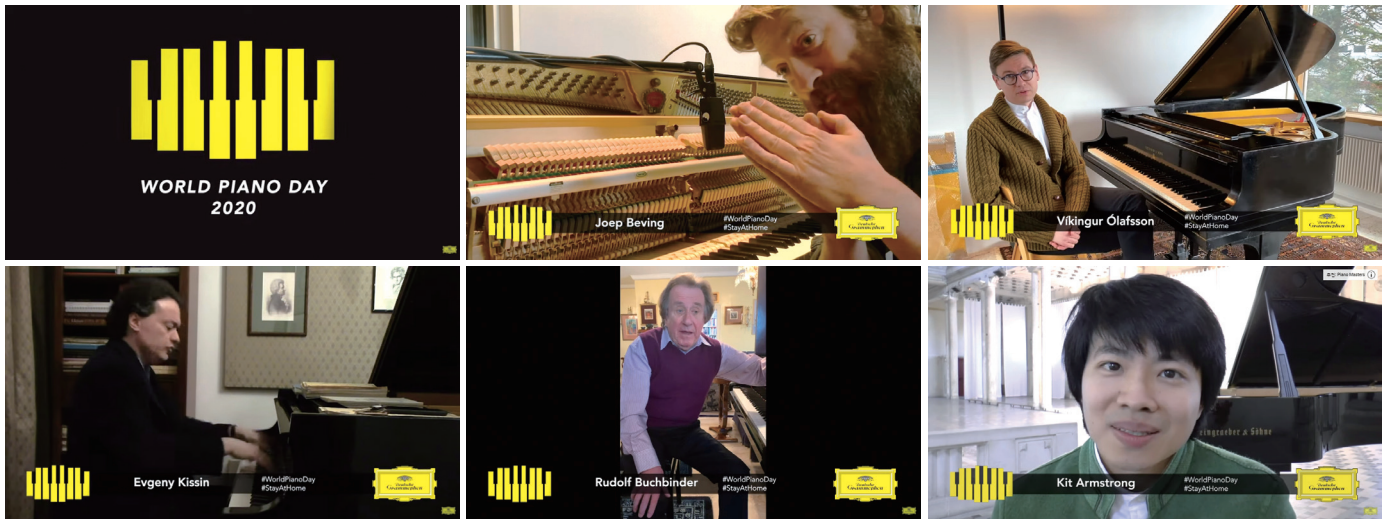
글 김승희 <빅이슈코리아> 편집장

사회적 거리 두기 시대의 피아노 콘서트

‘2020 세계 피아노의 날’ 기념 온라인 스트리밍 콘서트



피아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매년 88번째 날은 기억해줄 만하다.
88개의 건반을 지닌 악기 피아노를 기념하는 ‘세계 피아노의 날’로, 전 세계에서 다양한 기념 이벤트가 열리기 때문이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콘서트가 다수 진행됐다. 그중 클래식 음악계의 대표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마련한 가상 페스티벌은 전 세계 클래식 음악 팬들을 ‘방구석 1열’로 불러 모았다.



매년 88번째 날은 ‘세계 피아노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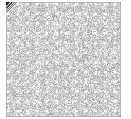
피아니스트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나온다. 건반 앞에 앉아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곧 근사한 연주가 시작되던 얘기다. 구름 같은 침묵 속에 청중의 기대가 섞여 있다.

클래식 음악의 연주회용 악기 중 가장 유용하고 기본적인 악기는 피아노다. 88개의 건반마다 하나의 음이 대응한다. 선율 악기와 화성 악기의 두 기능을 겸비해 복잡한 오케스트라 곡도 편곡 연주가 가능

하다. 프란츠 리스트가 편곡한 베토벤 교향곡이 그 예다.

오늘날 피아니스트들은 오케스트라 못지않은 가치를 지닌다. ‘일당 백’이다. 스타 피아니스트 한 사람이 거대한 콘서트홀의 객석 티켓을 매진시키고 청중은 열광한다.

1년에 한 번 세계인이 피아노를 기념하는 날이 있다. ‘세계 피아노의 날(World Piano Day)’이 그것이다. 독일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프로듀서인 닐스 프람(Nils Frahm)이 주창해 2015년 시작됐다. 매



년 피아노의 건반 수인 88번째 날에 개최된다. 피아니스트들에게 연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싶었던 프람은 “연주가, 피아노 제작자, 조율사, 운반용역, 그리고 누구보다도 청중이 함께 축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후 해마다 88번째 날에 전 세계에서 콘서트, 리사이틀, 강연, 쇼케이스를 통해 피아노와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함께 향유한다. ‘세계 피아노의 날’ 공식 누리집(www.pianoday.org)에 모든 일정이 공개된다.

세계 피아노의 날을 축하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다. 오디오와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해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을 감상하고 지역의 콘서트홀을 방문해 멋진 공연에 참여하면 된다. SNS에 피아노 레슨을 받거나 연주하는 장면을 올리고 해시태그 #WorldPianoDay를 단다.

2020년 세계 피아노의 날 행사가 지난 3월 28일 토요일에 열렸다. 수많은 공연이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거나 연기된 상황에서 세계 피아노의 날은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에 주력했다. 신호탄은 전날인 3월 27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쏘아 올렸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CEO 루이스 헤론의 인사말로 시작돼 세계 피아노의 날의 주창자 닐스 프람의 소개에 이어 존 홉킨스·마가렛 링 탄·옹 베빙·안드레아 람·사이먼 테데스키의 연주가 방송됐고,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조율사인 테리가 아이들에게 피아노에 대해 설명해주는 부분도 나왔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시대의 이색 페스티벌

다음 날, 노랑 바탕의 레이블 아이덴티티 디자인으로 유명한 도이치 그라모폰의 세계 피아노의 날 기념 가상 페스티벌은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명실공히 클래식 음악계 최고의 레이블에서 음반을 발매하는 소속 피아니스트의 연주 모습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이치 그라모폰의 대표인 클레멘스 트라우트만은 “기술의 발전 덕분에 명인 피아니스트들이 그들의 집에서 자신의 피아노로 전달하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세계인이 나눌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 시간으로 3월 28일 오후 11시 시작된 ‘랜선 축제’를 보기 위해 수많은 애호가 컴퓨터 앞에 앉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이름만으로도 익숙한 피아니스트들이 각자 머무는 집에서 연주해 ‘집 구경’을 하는 재미도 있었다.

포르투갈 출신의 거장 마리아 주앙 피르스가 1번 타자였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을 진지하게 연주하며 “우리 자신과, 세상

과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필요한 때”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제2의 글렌 굴드’로 손꼽히는 아이슬란드의 비킹구르 올라프손이 바흐와 라모, 드뷔시의 곡을 선사했다. 새소리 나는 숲이 보이는 듯한 큰 창이 인상적인 집이었다. 네오 클래식 기수인 옹 베빙이 특유의 분위기를 풍기는 자작곡을 선사했고, 베토벤 해석의 거장으로 꼽히는 루돌프 부흐빈더가 최근의 화제작인 <디아벨리 프로젝트> 앨범 중 몇 곡을 연주했다.

드디어 한국의 조성진 차례였다. 아늑함이 느껴지는 집에서 그가 연주하는 브람스의 간주곡 작품번호 118은 위로와 힐링이 되기 충분했다. 세계를 주름잡는 거장 피아니스트 가운데 한국인의 존재감에 자부심이 느껴졌다. 폴란드계 캐나다 피아니스트 안 리시에츠키는 쇼팽의 <녹턴>과 멘델스존의 <무언가>,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등 귀에 익은 곡들을 들려줬다. 버드와 바흐, 리스트 등을 연주한 미국의 킷 암스트롱은 명민한 연주로 이날 인상적인 연주를 보여준 피아니스트 중 하나로 남았다. 레바논·멕시코 혈통의 프랑스 피아니스트 시몬 그라이시는 빌라 로보스와 타레가, 마르케스 등의 이국적인 작품을 연주했다. 두 명의 러시아 피아니스트가 피날레를 장식했다. 예브게니 키신은 쇼팽의 폴로네즈 6번 <영웅>을, 다닐 트리포노프는 바흐의 <푸가의 기법> 중 몇 곡을 선보였다.

그다음 날인 29일에는 소노라스페이스(Sonoraspace)에서 버추얼 피아노 페스티벌을 열었다. 미국과 유럽 각국의 피아니스트 10명이 저마다의 공간에서 릴레이로 연주했다. 도이치 그라모폰의 세계 피아노의 날 행사와 비슷했다.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스트리밍 공연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른바 ‘방구석 1열’이란 이름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이 성황이다. 그러나 디지털 스트리밍은 공연예술의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 아티스트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실제 공연의 청중을 늘릴 수 있는 자기 홍보의 이벤트일 뿐이다. 아티스트와 공연장 측에 제대로 된 보상이 돌아가지 못하므로 장기화될 수 없다. 랜선 음악회의 오디오적 퀄리티 역시 잘 갖춰진 시스템에서 접하는 음반과 DVD, 블루레이에 미치지 못한다. 어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서 청중이 가득한 공연장에서 피아니스트의 예술혼과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글 류태형_음악칼럼니스트 사진 도이치 그라모폰 유튜브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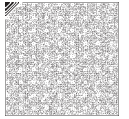
그렇게 아이들은 자라, 느닷없이 가족이 된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바닷마을 다이어리>



곁에 있었지만 우리는 늘 아버지가 그리운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의 아버지에게서 제 역할을 배워본 적이 없던 우리의 아버지들은
사회적 역할과 가정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갖지 못하고 주춤하다가 가족이라는 구심점에서 점점 멀어졌다.
그래서 늘 옆에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듯한 사람이 돼 가족을 잊거나 혹은 잃어갔다.
아버지가 다스베이더의 가면을 쓰고 표정을 숨긴 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들만 가족을 놓친 것은 아니다.
가장이 된 어머니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식들을 방치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고아 아닌 고아가 돼버린 아이들은 부모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느리고 조용하게 관찰하는 삶

요시다 아카미 작가의 동명 원작 만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곳곳하게 살아가는 생존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 15년이나 소식을 끊고 살아온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세 자매—사치(아야세 하루카)·요시노(나가사와 마사미)·치카(가호)는 기억에도 없는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한다.

기억도 추억도 없기에 슬픔도 감흥도 없지만, 장례식장에서 만난 이복동생 스즈(히로세 스즈)는 자매에게 혼란스럽지만 엄연히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가장이나 다름없는 큰언니 사치는 홀로 남겨진 스즈가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스즈를 그들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즐거리만 보면 혼란과 소동, 격한 감정이 휘몰아치는 걱정 드라마가 만들어질 것 같지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언제나처럼 흔들림을 떠는 법을 모른다.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오열 대신, 아버지가 사라진 공간에 함께 남은 네 여성의 삶을 감독은 꾸준하고 묵묵하게 바라본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였지만 사실 한 번도 온전한 가족이었던 적이 없는 네 여성이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과정에 과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는 줄곧 속삭임처럼 낮고 조용해 더 선명하게 가슴으로 스며든다. 역할의 경중을 떠나 모든 인물을 보듬어온 히로카즈 감독의 다른 영화에 비해 주인공인 네 자매 각각이 지닌 이야기의 깊이와 넓이에 편차가 있는 것은 아쉽다. 하지만 특유의 섬세함과 느낌의 미학이 만들어내는 소소한 일상은 원작 만화의 프레임이 담아내지 못하는 드넓은 자연의 풍광과 어우러져 더욱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사람들은 가족이 된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속에는 한결같이 아버지가 사라진 후 (혹은 제 아비에게 버림받은 후) 살아가는 아이들이 등장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보고 있다면 그의 2005년작인, 부모 없이 남겨진 아이들의 이야기 <아무도 모른다>가 묘하게 겹쳐 보인다. 부모 없는 아이들의 곳곳한 성장을 바라보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시선은 여전히 따뜻하고 차분하다.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던 히로카즈 감독이 2013년 작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통해 아버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단 한 번도 가슴으로 아버지를 느껴본 적이 없던 주인공 료타(후쿠야마 마사하루)가 비로소 가슴으로 아버지가 돼가는 성장담은 호들갑스럽지도 않고, 신파적인 울림도 없이 조용히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덜 자란 아버지를 채근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특유의 시선에 있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모두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으리라는 관조적인 시선은 <바닷마을 다이어리>에도 드러난다. 흔히 우리가 악인이라 부르는 인물들—아이를 버린 엄마, 가족을 버린 아빠, 갑자기 등장한 이복동생—조차 그의 영화 속에서는 악인이 아니다. 분노와 슬픔을 쏟아내고 책임을 져야 할 누군가가 있어야 드라마가 더 강해짐에도 히로카즈 감독은 자신의 작품 속에 악인을 만들어 넣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조차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 사람도 나만큼이나 서투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토닥토닥 품는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줄곧 타인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아도 좋다고, 누군가가 사라져도 내 인생은 살아진다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처럼 나에게 찾아온 변화의 순간을 그저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비가 내리면 호수에 여울이 지고, 햇살이 드리우면 젖은 풀이 마르고, 눈이 내리면 더러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덮일 수 있다고 속살거린다. 그렇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는 언제나처럼 격한 위로 대신 살포시 내 손을 잡아 주는 친구 같다.

<바닷마을 다이어리>(2016)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출연 아야세 하루카(코우다 사치 역)

나가사와 마사미(코우다 요시노 역)

가호(코우다 치카 역)

히로세 스즈(아사노 스즈 역)

글 최재훈_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결제수수료 0%, 소득공제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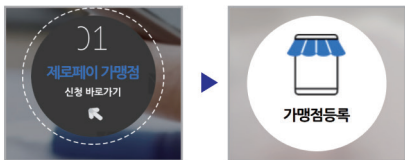
간편하다!

제로페이 서울

PC·스마트폰으로 가맹점 신청도 간편하게!

1 제로페이 홈페이지 검색

zeropay.or.kr



※ 유사 사이트(zeropay.co.kr) 주의

2 회원가입

'가맹점 등록 확인' 조회 ▶ '신규 가맹점 등록 신청'

3 사업자 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완료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입력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업로드

소비자는 QR코드로 결제도 손쉽게!

1 제로페이 참여 사업자의 결제 앱 설치

·설치 후, 결제계좌 등록
·이미 설치된 사용자는 기존 앱 사용



2 간편결제 앱에서 가맹점 QR코드 촬영

3 결제 금액 및 비밀번호 입력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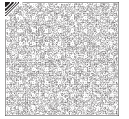


소상공인 돕고!
소득공제 받고!

제로페이서울

※ 가맹점 신청: zeropay.or.kr





WEB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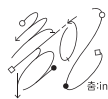
주머니 속 문학잡지 [비유]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책장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view.sfac.or.kr



연극 전문 웹진 [연극in]은 연극을 다양한 감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현장과 무대, 공연하는 예술가를 관객과 매개합니다.

webzine.e-stc.or.kr



[춤:in]은 무용 전문 웹진으로 정보와 이슈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용계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choomin.sfac.or.kr



내면으로 침잠하는 종족



〈쓰다〉 28호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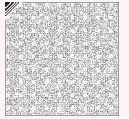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어렵게 읽히는 걸 기꺼이 감수하는 글이 있다. 시는 당대의 가장 새롭고 낯선 언어와 관계 맺기를 두려워한 적이 없으며, 이는 더욱 정확히 말하려는 시의 이상 때문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현대시가 어려워진다고, 독자를 배제하는 문학이 돼간다고, 그래서 요즘 시는 시도 아니라는 비난 속에서도, 여전히 시는 독자에게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말, 그래서 오히려 생경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말을 건네려 한다.

〈쓰다〉 28호에 실린 김행숙 시인의 〈카프카 씨, 들으세요〉는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 〈요제피네, 여가수 또는 서씨족〉의 영향 아래 쓰인 작품이다. 카프카는 요제피네라는 가수를 통해 대중에게 예술 행위를 노동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과정을 그린다. 그리고 김행숙은 2020년 현재 우리의 공간과 상황 속으로 카프카와 요제피네를 소환한다. 이제 독자는 그들의 목소리를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처럼 지극히 현실적인 장소에서 들어야 한다. 그만큼 그들은 더욱 구체적이며, 훨씬 낯설다.

축하합니다, 카프카 씨. 당신은 남쪽으로 난 커다란 창문을 가지게 되었군요. 그런 창문이 당신의 글쓰기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럽습니다. 아마 소형 평수라고 해도 당신처럼 뻐뻐 마른 독신남이 살기에는, 넓어요. 그리고 버튼만 누르면 응답처럼 지하에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나는 계단과 씨름하다가 굴러떨어진 적이 있어요.

김행숙 〈카프카 씨, 들으세요〉 부분

휴학생으로 이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화자는 오늘 파견된 곳에서 카프카 씨를 만난다. 카프카에 따르면 “쥐의 종족이라면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어른이” 된다. 이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쥐의 생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린 시



질 혹은 학창 시절의 낭만도 즐길 겨를 없이 노동에 뛰어드는 가난한 삶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 '쥐의 종족'이란,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자기를 감추고 사는 특정한 부류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거리, 어느 건물에서 매일 마주치는 저 흔한 노동자들이다.

그럼에도 쥐의 종족으로 비유될 만큼 허름한 노동자의 삶은 어째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일까. “버튼만 누르면 응답처럼 지하에서” 올라오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이미지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신비는 돈으로 모든 일을 간단하게 만들어버리는 데 있다. ‘나’가 “계단과 씨름하다가 굴러떨어”지는 동안, 누군가는 그저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나’의 육체가 겪는 과정을 간단히 생략한다. 자본주의의 자동화란, 육체가 흘리는 땀과 가난한 삶의 냄새를 우리의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나는 금전을 사랑해야 해요. 돈을 만지작거리는 손은 따뜻하고, 우리가 돈을 주고받는 짧은 순간에도 전염병이 지구처럼 돌고 있어요, 요제피네도 멀리 가지 못했어요. 당신은 그녀가 우리를 완전히 떠나버렸다고 했지만, 그렇게 작은 동물이 어디로,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나는 또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김행숙 <카프카 씨, 들으세요> 부분

김행숙 시의 ‘나’는 카프카 씨의 이사를 돕기 위해 지하에서 응답처럼 불러 올라온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한다. “나는 쥐처럼 내면으로 침잠하는 종족”이라고, “나는 금전을 사랑해야”한다고 말이다. 그는 어린 시절의 낭만과 학창 시절의 기쁨을 포기하고 노동 현장에 투입돼 원치 않는 삶을 산다. 그런 그에게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전개할 만한 여유도, 현실을 타개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도 있을 리 없다. 그는 쥐의 종족이다. 이 구차한 삶이라도 지속하기 위해서, 그는 카프카 씨의 가르침보다 혹은 요제피네의 노래보다, 우선 “금전을 사랑해야” 한다.

카프카 씨의 침대 밑으로 쥐 한 마리가 기어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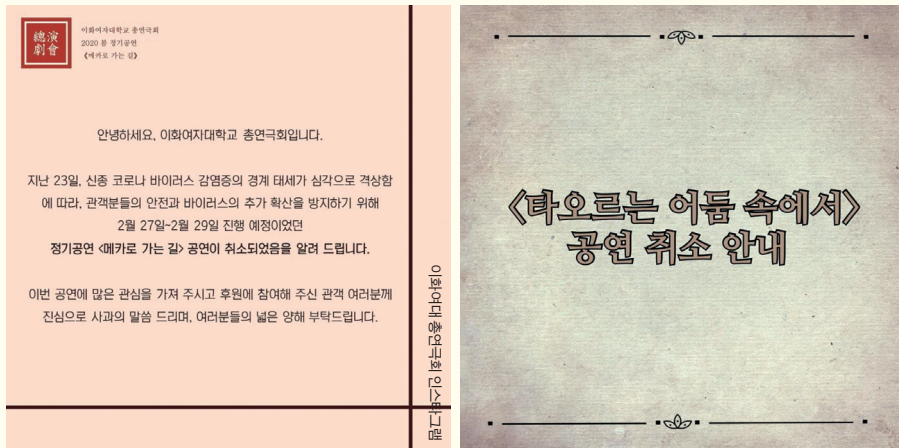
김행숙 <카프카 씨, 들으세요> 부분

하지만 요제피네는 살아 있다. 현실은 자본으로 교환될 수 없는 모든 것의 가치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아니, 자본주의는 모든 것이 자본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어찌면 쥐의 종족이 그러한 삭막한 믿음에 어떤 균열이거나 오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쥐의 종족은 너무 작고 하찮기에, 오히려 너무나도 작은 존재이기에 그들은 작은 어둠에도 숨어 지낼 수 있다. 카프카가 “그녀가 우리를 완전히 떠나버렸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쥐의 종족은 그의 품이 만들어내는 어둠 속에, 그의 침대가 드리우는 좁은 그늘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김행숙 시인은 바로 그러한 어둠 혹은 그늘 속에 우리의 희망, “거의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보인다. 사라졌다고 믿었던 요제피네의 목소리는, 화자의 내면 안에서도, 카프카 씨의 체념에 가까운 가르침 안에서도 발견되며, 또한 “페스트”처럼 어디로든 숨어든다. 자본주의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도 쥐의 종족은 결코 멸종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요제피네의 노래가 들려온다면 그들은 “조용히 일어”설지도 모른다.

글 김잔디_웹진 [비유] 편집자 사진 제공 웹진 [비유]

봄 같지 않은 봄

극회출신 관객의 학공관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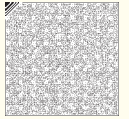
이화여대 총연극회 정기공연 취소 공지(왼쪽)와 한성대 낙산극회 정기공연 취소 공지(오른쪽)

대학교 학생 공연(이하 학공)을 많이 보는 나에게 3월은 1년 중 가장 바쁜 달이다. 긴 겨울 동안 각 대학 연극 동아리들이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보러 다니느라 그렇다. 각 연극 동아리들이 이번에 어떤 작품을 언제 올리는지 확인하고, 일정과 동선을 어떻게 짜야 최대한 많은 학공을 볼 수 있을지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한다. 하루에 두 편의 공연을 보는 것은 이제 예삿일이다. 대학교들을 돌아다니며 학공을 보고 그에 대한 리뷰까지 쓰면서 나의 3월이 채워진다. 잇따른 공연 관람과 리뷰 작성에 몸이 피로해지기 일쑤지만 마음만은 뿌듯하다.

2020년의 3월은 그런 감정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은 한국의 대학 연극 공연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2월 말에 예정돼 있던 연세대학교 세란극회, 이화여자대학교 총연극회, 한성대학교 낙산극회의 공연을 시작으로 3월과 4월에 예정돼 있던 대부분의 공연까지 공연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만 했다. 2월 말에 올라갈 예정이던 공연들은 첫 공연 날, 불과 며칠 전에 예약한 관객들에게 공연 취소 안내를 해야만 했다. 결국 지난 몇 년간 빠지지 않고 바쁜 3월을 보내온 나는 학공이 없는 3월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공연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는 공연을 통해 성장한다. 연극에 대해 공부하기도 하고 선배들로부터 노하우도 전수받지만 실제 공연에 참여한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많다. 내가 연극 동아리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기획이나 조



명, 그 외 음향·의상·분장 등의 공연 요소들이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말로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연을 한번 겪고 나니까 감이 잡히기 시작했다. 조명이 연극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음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기획이 없다면 어쩌서 공연이 돌아가질 못하는지 등에 대해 알게 됐다. 물론 한 번의 공연으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공연 횟수를 쌓으면서 연극에 대해 점점 자세히 알게 되고 후배들을 가르칠 수도 있게 됐다.

공연 경험은 단순히 연극의 각 요소에 대해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다른 배우 및 스태프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같이 작업해야 하는지 익힐 수 있었다. 나는 고등학생 시절까지 입시에 매몰돼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지만 대학교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과 원만히 지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공연이라는 눈앞의 큰 과제를 다른 사람들과 완성해 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다. 공연을 통해 연극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다시 공연을 올릴 것이다

유례없는 사태 속에서 나같이 학공을 좋아하는 사람의 아쉬움도 크지만, 가장 속상한 것은 한 달 이상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던 각 연극 동아리의 공연진일 것이다. 공연을 직접 올리는 것이 연극 동아리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재미이고 가장 크게 성장할 기회다. 그 기회가 허무하게 날아간 것이다. 그것을 각 연극 동아리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공연진과 관객의 안전을 위해 공연 취소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이번 봄 공연이 동아리 활동의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 듯 봄이 지나고 여름과 가을이 오면 또다시 공연을 올릴 것이다. 이번 공연이 엮여지거나 연기된 것은 돌이킬 수 없다.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공연을 준비하는 것뿐이다.

못 올라간 봄 공연은 5월 이후로 미뤄지거나 아예 새로운 공연이 그 시기에 올라갈 것이라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언제 진정돼 다시 모여서 연습하고 공연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 믿고 다음 공연을 준비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연극을 좋아하고 대학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태가 어서 종식돼 학교의 연극 동아리원들이 공연을 올리는 재미를 다시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 날씨가 너무나 좋지만 밖에 나가지 못하고, 새 학기인데도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학공이 많이 올라가는 시기이지만 무대에 올라가는 학공이 없다.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하고 심란한 봄이어서 연극과 예술에 대한 관객의 관심마저 멀어지게 만든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희망을 찾기 위해 계속 연극을 올리고 볼 것이다. 대학 연극 동아리들이 이번 시련을 발판 삼아 이후에 더욱 의미 있고 추억이 되는 공연을 올리면서 이를 통해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글 이정환_서강대학교 연극 동아리 서강연극회 출신. 연극반에서 〈취댓〉 배우, 〈지평선 너머〉 기획, 〈어느 계단의 이야기〉 연출, 〈사쿠라가든〉 조연출, 〈루나자에서 춤을〉 음향감독, 〈K대부고 점거사건〉 기획팀 등 총 14번의 공연에 참여함. 지금은 단지 학공을 좋아하는 인터넷 블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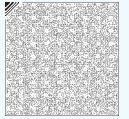
춤+여기

쌓고, 부수고, 늘어놓고, 다시 쌓는 춤

최강프로젝트(강진안+최민선)



© Kenn. 김병구



Q 당신은 누구입니까?

강진안 최강프로젝트로 활동하고 있는 강진안입니다. 어디서부터 춤이 발생하며 무엇이 몸을 움직이게 하느냐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움직임의 방법과 형태를 찾아보고 있어요. 외부 장치들과 움직임을 연결하는 것을 좋아해서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최민선 강진안 씨와 최강프로젝트로 활동하고 있는 최민선입니다. 보통 안무가나 무용수로 소개되지만, 반려묘 뽕개의 엄마이기도 하고, 강진안 씨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엄마의 딸이기도 하죠. 저희가 최강프로젝트로 함께 작업하는 이유는, 홀로 서는 것이 연약해서지요. 홀로 안무 작업을 한다면 추진력이 떨어질 텐데,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기생하며 함께하다 보니 추진력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1+1처럼.(웃음)

Q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곳은 저희가 작업을 시작하거나 아이디어를 나누어야 할 때 찾는 공간이에요. 저희는 어떤 것을 결정하고 답을 찾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데, 이곳 테라스에서 햇빛을 쬐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보고 있으면 단혀 있던 감각이 열리는 느낌이 들어요. 어떨 때는 그냥 손에 잡히는 책을 읽거나 쓸데없는 일을 하기도 해요. 이거 하다가 저거 보다가, 그렇게 경계 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쌓여가고 작업의 윤곽이 드러나죠.

Q 이곳에서 춤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최민선 이곳에는 춤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상태가 머무는데, 항상 형체가 없고 유령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많은 곳이기도 하죠.(웃음) 그리고 이곳에서 춤이 발견된다고보다는 이곳에서 춤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정리하고 이리저리 붙여보며 움직임의 원리와 구조를 만들어나가죠. 그 과정을 통해 완성된 움직임의 씨앗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게 돼요.

강진안 한창 작업을 쌓아 올리다 보면 막히는 순간을 마주하게 돼요. 그럴 때 저희는 그대로 고정해 두고 밀고 나가는 방법이 아닌, 쌓아뒀던 것을 부수고, 늘어뜨리고, 다시 쌓아보는 방법을 선택해요. 아무리 잘 쌓아오고 있었더라도 무언가에 막혀 쌓이지 않는다면, 그건 지금까지 잘못 쌓고 있었던 거죠. 작업을 쌓는데도 어디에 무엇을 넣느냐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치가 맞는지 하나씩 대보고 넣었다가 빼보곤 해요. 들어갔다 나왔다.(웃음) 작업에서도 어떤 요소를 뺀다는 것보다 어떻게 쳐내고 중요한 것을 잘 드러나게 할 것이냐를 중요시하고 있어요.

취재·정리 김연임 웹진 [춤:in] 편집장

아티스트 소개 최강프로젝트는 2015년에 한국, 서울에서 시작한 프로젝트 그룹으로 움직임을 기반으로 직관적인 방식의 움직임 생성 방법을 찾고 있으며 다원적인 실험과 외부 장치를 통해 몸과 연결하는 과정에 집중하는, 최민선과 강진안으로 구성된 그룹이다.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춤: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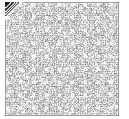
05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남산예술센터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삼일로창고극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시민청 | 삼각산시민청
- 신당창작아카데미
- 연희문화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청년예술청

- SFAC 축제 | 예술교육 | 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Mon	Tue	Wed
4	5 ● 연극 <달아달아 밝은 달아>(~5.10)	6 ● <015: 0(Young) 아티스트, 15개의 서울> 참가자 공모(~5.6) ● 연극 <1인용 식탁>(~5.23)
11	12	13 ● 전시 <토비아스 레베르거: Truths that would be maddening without love>(~5.13) ● 손열음 피아노 리사이틀
18 ● 전시 <데이비드 오스트로츠키: 사람, 그림, 감정>(~5.18)	19 ● 연극 <만약 내가 진짜라면>(~5.29) ● 연극 <피스오브 랜드>(~5.29)	20 ● 연극 <환희 물질 화상>(~5.30) ● 2020 정오의 음악회 ● <동궁-세자의 하루>(~5.24)
25	26	27  ● 뮤지컬 <풍월주>(~8.2)



Thu	Fri	Sat	Sun
	1	2 ● 전시 <남화연: 마음의 흐름>(~5.2) ● 연극 <혼마라비해?>(~5.10) ● 연극 <전쟁터의 소풍>(~5.13) ● 연극 <죽음의 집>(~5.13)	3 ● 전시 <24: 정직성, 김태규 2인전>(~5.3) ● 연극 <오스트 별장의 영혼 경매>(~5.3) ● 연극 <용민지애정술 본풀이>(~5.3) ● 연극 <참담한 빛>(~5.3)
7 ● 연극 <이게 마지막이야>(~5.31) ● 연극 <기록의 기술>(~5.10)	8 ● 2020 서울문화재단 시민청 문화예술 공모(~5.8) ● 서울거리예술축제 2020 국내 참가작 공모(~5.8) ● 전시 <ENSEMBLE AT HANNAM 2nd>(~5.8) ● 한국인이 사랑하는 러시아 작곡가 시리즈 II: 차이코프스키 ● 전시 <스누피 展: To the Moon with Snoopy> (~6.21)	9 ● 전시 <행복이 나를 찾는다>(~5.9) ● 전시 <2019 올해의 금속공예가상 수상작가작품전>(~5.9) ● 전시 <성낙희: Modulate>(~5.9) ● 연극 <럼스>(~7.5)	10 ● 전시 <로봇 아트 팩토리>(~5.10) ● 전시 <테리보더: 먹고, 즐기고, 사랑하라> (~5.10) ● 연극 <헨젤과 그레텔>(~5.10)
14 ● 국립창극단 <춘향>(~5.24)	15 ● 국립극장 창설 70주년 기념공연 <국립합창단 베스트 컬렉션>(~5.16) ● 연극 <아지트, 틴스>(~5.17)	16 ● 신세계와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토요 콘서트 ● 전시 <프레드 윌슨: Glass Works 2009-2018>(~5.16)	17 ● 전시 <파랑새>(~5.17)
21	22 ● 뮤지컬 <아랑가>(~7.26) ● 국립극장 창설 70주년 기념공연 <국립오페라단 한국 오페라 베스트 컬렉션>(~5.23)	23 ● 전시 <이종건: 세 개의 기둥과 하나의 벽> (~5.23) ● 연극 <우산도둑>(~5.24) ● 연극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5.30) ● 디즈니 인 콘서트(~5.24)	24
28	29	30 ● 토요일악동화 <강아지 똥> ● 연극 <벨벳 토끼>(~5.31)	31 ● 연극 <지구를 지켜라>(~5.31) ● 전시 <김재용: 도넛 피어>(~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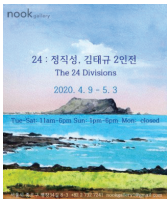
※이번 호에 실린 공연·행사 등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극 <혼마라비해?>

일본의 오사카 쓰루와시 시장 한인타운에서 살아가는 자이니치의 삶을 바탕으로 한국·일본·북한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경계인의 삶을 그리며 일본의 자이니치에 대한 한국인의 오해와 편견을 다룬다. 2009년 일본 오사카에 방문하게 된 극작가 '영주'가 거기서 알게 된 재일동포 '지숙'을 만나면서 뜻밖의 일들을 겪게 된다.

일시 5월 2일(토)~10일(일)
 평일 및 공휴일 오후 8시 | 주말 오후 3시·7시(월 공연 없음)
 5월 2일(토) 오후 3시 공연 없음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506-050-0628



전시 <24: 정직성, 김태규 2인전>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24절기를 주제로 계절의 순환과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전시다. 전업 작가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온 정직성 작가와 일반인으로 그림을 그려온 김태규 작가의 전시를 통해 다른 경험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자연과 삶에 대한 감흥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5월 3일(토)
 화~토 오전 11시~오후 6시
 일·공휴일 오후 1시~6시(매주 월 휴관)
장소 누크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02-732-7241



연극 <1인용 식탁>

윤고은의 동명 단편소설인 원작은 발표 당시에 '혼밥'을 가르쳐주는 학원이라는 소재로 주목을 받았다. 갓 신입사원 딱지를 뗀 인용은 이유 없이 따돌림을 당한다. 매일 혼자 밥을 먹던 인용은 '혼자 밥 먹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학원에 등록하게 된다.

일시 5월 6일(수)~23일(토)
 화~금 오후 8시 | 주말 오후 3시(월 공연 없음)
 5월 20일(수) 오후 4시·8시
장소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관람료 전석 3만 5천 원
문의 02-708-5001



연극 <이게 마지막이야>

지난해 초연해 월간 한국연극 '공연 베스트 7',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레드어워드 '주목할 만한 시선'에 선정되는 등 호평받은 작품이다. <인정투쟁: 예술가 편> <전화벨이 울린다>를 연출한 이연주가 대본을 쓰고 우리 사회 고통받는 이들에 귀 기울여온 이양구가 연출로 참여한다. 2020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이다.

일시 5월 7일(목)~31일(일)
 월·화·목·금 오후 8시 | 주말·공휴일 오후 3시(수 공연 없음)
장소 연우소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744-7090



연극 <달아달아 밝은 달아>

소설가 최인훈의 몇 안 되는 희곡 중 한 작품으로, '심청' 캐릭터를 모티브로 새롭게 창작된 희극이다. 심청의 효나 인과응보적인 메시지가 아닌 잔혹한 현실을 그린다는 면이 가히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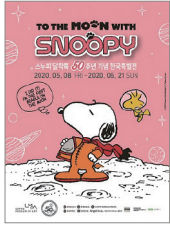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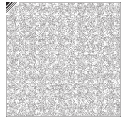
일시 5월 5일(화)~10일(일)
 화~금 오후 8시 |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3시(월 공연 없음)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문의 010-2368-1739



2020 서울문화재단 시민청 문화예술 공모

서울문화재단 시민청은 참신하고 독창적인 문화 예술을 만드는 개인·단체·그룹을 선정하고 제작비(공연 분야 최대 5백만 원, 전시 분야 최대 1천만 원, 교육 분야 최대 8백만 원)와 프로젝트 장소(시민청)를 지원하는 통합 공모를 시행한다. 공모 접수는 서울문화재단 누리집(www.sfac.or.kr)에서 가능하다.

일시 ~5월 8일(금)
문의 02-739-5816, 7331(공연),
 02-739-5811, 5229(전시·교육)



전시 <To the Moon with Snoopy>

롯데뮤지엄은 스누피 달 착륙 50주년 기념 한국 특별전 <To the Moon with Snoopy>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달 착륙이라는 인류의 도전과 스누피 캐릭터에 영감을 받은 한국 아티스트들의 작품으로 구성했다. 1969년 달로 떠난 아폴로 10호의 사령선과 달 착륙선의 이름이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였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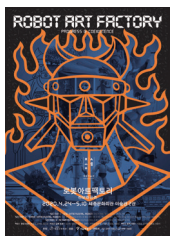
일시 5월 8일(금)~6월 21일(일)
오전 10시 30분~오후 7시
장소 롯데뮤지엄(롯데월드타워 7층)
관람료 성인 1만 5천 원, 청소년 1만 2천 원, 어린이 9천 원
문의 1544-7744



전시 <행복이 나를 찾는다>

이번 전시는 세종미술관이 기획 전시로는 처음 시도하는 다원예술 프로젝트로, 시각예술가와 서울시무용단·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서울시극단이 협업해 서울시의 예술적 자원과 서로 간의 교류를 확장하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자리로 기획됐다. 미술관의 전시장을 다양한 사건, 퍼포먼스가 일어나는 공간이 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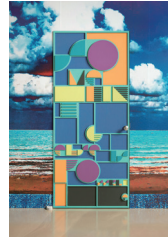
일시 ~5월 9일(토) 오전 11시~오후 7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관
관람료 무료
문의 399-1000



전시 <로봇 아트 팩토리>

이번 전시는 예술과 과학의 융합을 통한 공존을 모색하자는 시각에서 '로봇'을 소재로 접근했다. 예술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로봇의 다양한 표현을 평면·입체·동력의 세 가지 색션으로 나눠 구성했고, 로봇이 작가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섬세함, 그리고 창작력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돼 관람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일시 ~5월 10일(일) 오전 11시~오후 7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2관
관람료 무료
문의 399-1000



전시 <토비아스 레베르거: Truths that would be maddening without love>

독일 현대미술 작가 토비아스 레베르거가 지난해에 이어 한남동에서 열리는 개인전을 위해 또다시 한국 땅을 밟았다. 한번 보면 잊히기 쉽지 않을 만큼 강렬한 작품으로 명성이 나 있는 그는 다양한 패턴과 구조, 크고 작은 스케일을 넘나들며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 2009년 제53회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 수상 작가이기도 하다.

일시 ~5월 13일(수)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일·월 휴관)
장소 한남동 갤러리바톤
관람료 무료
문의 02-597-5701



창극 <춘향>

국립창극단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창극 <춘향>을 새롭게 선보인다. 2020년 새롭게 탄생하는 창극 <춘향>은 주인공 '춘향'을 주목하는 동시에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본능적인 감정 '사랑'에 방점을 찍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연출가이자 영화배우이며 국립극장 극장장, 제8대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김명곤이 극본과 연출을 맡았다.

일시 5월 14일(목)~24일(일)
화~금 오후 8시 | 주말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5천 원, A석 2만 원
문의 02-2280-4114



국악 <정오의 음악회>

2009년 시작된 국립극장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국악 브런치 콘서트로, 꾸준히 관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처음 접하는 관객도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국악 관현악곡과 대중가수, 뮤지컬 배우 등이 선보이는 우리 음악의 조합을 만날 수 있다.

일시 5월 20일(수) 오전 11시
장소 국립극장 하늘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2280-4114



뮤지컬 <아랑가>

<아랑가>는 판소리를 극의 다양한 형태로 사용해 호평을 받으며 2014년 '아시아 시어터 스쿨 페스티벌' 최우수 작품상 수상을 시작으로 2015년 'CJ 크리에이티브 마인즈 리딩'과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예그린 앙코르 최우수 작품'에 선정된 작품이다. 2016년 초연, 지난해 재연을 거치며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도미부인 관련 설화를 바탕으로 475년 백제의 개로왕, 도미장군과 그의 아내 아랑의 이야기를 담았다.

일시 5월 22일(금)~7월 26일(일)
 화·목·금 오후 8시 | 수 오후 4시·8시
 주말 오후 3시·6시 30분(월 공연 없음)
 5월 27일(수) 오후 4시·5월 31일(일) 오후 6시 30분 공연 없음
장소 정동극장
관람료 R석 6만 6천 원, S석 4만 4천 원
문의 02-751-1500



음악 <디즈니 인 콘서트>

대형 LED 화면에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펼쳐지고, 60인조 이상 규모의 다토 오케스트라가 선보이는 반주와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의 노래까지 더해진다. 2020년 <디즈니 인 콘서트>에서는 <인어공주> <신데렐라> <미녀와 야수> 등에 삽입된 곡과 <겨울왕국2>의 신곡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일시 5월 23일(토)~5월 24일(일)
 토 오후 2시·7시 | 일 오후 2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VIP석 11만 원, R석 9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문의 02-399-1000



연극 <우산도둑>

2020 세계&세계 연극제의 두 번째 작품으로 우산을 만들어낸 예쁜 세상과 좌충우돌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관객 참여극이다.

일시 5월 23일(토)~24일(일)
 토 오전 11시·오후 2시 | 일 오후 2시
장소 성수아트홀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2204-7572, 7579



전시 <세 개의 기둥과 하나의 벽>

피비갤러리에서 두 번째로 개인전을 여는 이종건은 벽과 기둥이라는 건축의 기본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가변하는 공간의 속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건축물에서 발견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보편적으로 공유되는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에는 갤러리 내의 기둥을 모티프로 벽, 아치 원통형 기둥과 건축적 요소로 치환한 작품을 '세 개의 기둥과 하나의 벽'이라는 제목으로 선보인다.

일시 ~5월 23일(목) 오전 11시~오후 6시(매주 일·월 휴관)
장소 삼청동 피비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02-6263-2004



뮤지컬 <풍월주>

신라 시대 남자 기생이라는 독특한 소재와 애절한 이야기로 매 시즌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창작 뮤지컬 <풍월주>가 다섯 번째 무대에 오른다. 새로운 시즌을 맞아 뮤지컬 <풍월주>는 극장의 크기를 줄여 작품 고유의 감성을 살렸다. 다시 돌아온 반가운 배우들과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된 신선한 얼굴들이 눈길을 끈다.

일시 5월 27일(수)~8월 2일(일)
 화~금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3시·6시 30분(월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1관
관람료 R석 6만 6천 원, S석 5만 5천 원, A석 4만 4천 원
문의 070-7724-1535



연극 <벨벳 토끼>

2020 세계&세계 연극제의 마지막 작품으로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을 애착 인형과의 경험을 통해 '사랑' '존재' '관계'의 의미에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담긴 어린이 광대극이다.

일시 5월 30일(토)~31일(일)
 토 오전 11시·오후 2시 | 일 오후 2시
장소 성수아트홀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2204-7572, 7579

41st

2020.
5. 2. (토)
~
5. 31. (일)



서울연극제

The 41st Seoul Theater Festival

서울연극제 THE 41ST SEOUL THEATER FESTIVAL

혼마라비해?

극단 실한
5. 2. (토)~5. 10. (일)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전쟁터의 소풍

창작공동체 아르케
5. 2. (토)~5. 13. (수)
한양레퍼토리 씨어터

죽음의 집

아어
5. 2. (토)~5. 13. (수)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달아 달아 밝은 달아

공연제작센터(PCPA)
5. 5. (화)~5. 10. (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만약 내가 진짜라면

드림플레이 테제21
5. 19. (화)~5. 29. (금)
한양레퍼토리 씨어터

피스 오브 랜드

극단 김장하는날
5. 19. (화)~5. 29. (금)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환희 물질 화상

프로덕션 IDA
5. 20. (수)~5. 30. (토)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

극단 수
5. 23. (토)~5. 30. (토)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주최 서울연극협회
주관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종로구,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연출가협회,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사)한국연극배우협회,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사)한국극작가협회, (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사)한국소극장협회, 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

문의 02-765-7500
홈페이지 www.stf.or.kr

서울연극협회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agazin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4월호 독자 의견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되는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뽑아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지역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에바토르가 코로나 19 관련된 내용이라 흥미로웠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본지는 [문화+서울] 웹진(www.sfac.or.kr/magazine)으로도 발행되며 종이 잡지는 주요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엽서

김민석 님(서울시 종로구)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지역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테마토르가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이라 흥미로웠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편집 후기

그동안 못 갔던 캠핑이나 가즈아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역지사지(易地思之).
전주호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5월호도 함께했습니다!
홍지형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괜찮으세요?’말고, ‘잘 지내시지요?’라고, 모두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김태희 객원 편집위원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아림 객원 기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전은정 객원 기자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대학로 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회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 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예술가의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하자센터,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내가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이유”

나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은 생명을 지킵니다

함께할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의 힘은 **으쌔!**

- ☞ 밀폐·밀집공간과 밀착은 피해주세요 (예 : 클럽, 유흥업소 등)
- ☞ 안전거리 2m를 지켜주세요 (불가피한 외출 시)
- ☞ 볼나들이와 야외활동은 다음을 기약해주세요

서울씨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다.